

# 중국의 증오범죄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2020년 5월

**경 찰 청**

김 병 우

# 목 차

국외훈련개요.....	4
훈련기관개요.....	5
훈련결과보고요약서.....	9
1. 서론.....	15
2. 증오범죄의 개념.....	16
(1) 증오범죄의 문화배경.....	16
가. 중국 고대의 복수 문화.....	17
나. 서양의 고대 복수 문화.....	24
(2) 증오범죄의 개념.....	32
가. 증오범죄 개념의 도출.....	32
나. 증오범죄의 개념.....	33
다. "증오범죄"와 관련된 개념 분석.....	36
라. 증오범죄와 폭력범죄.....	40
마. 증오범죄와 테러리즘.....	42
바. 증오범죄와 미신범죄.....	44
3. 증오범죄의 대표사례 분석.....	45
(1) BMW 남 살인사건 등 부자증오(仇富).....	47
(2) 신장 카시(喀什) "84" 변방수비대 공격 사건 등 공무원·종교관련 증오(仇官).....	48
(3) 온링"1025" 의료인 살인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증오범죄(仇医).....	49
(4) 장쑤성(省) 타이싱 유치원 살인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범죄.....	51
(5) 증오범죄의 문제 분석.....	53

4. 중국형 증오범죄의 주요특징 .....	58
(1) 중국형 증오범죄의 분류 .....	62
(2) 증오범죄의 유형별 특징 .....	65
가. 개인적 증오범죄와 집단적 증오범죄 .....	66
나. 차별, 편견범죄 .....	66
(3) 범죄주체의 특징 .....	67
(4) 범죄객체의 특징 .....	68
(5) 범죄동기의 특징 .....	70
(6) 행위방식의 특징 .....	71
5. 중국형 증오범죄의 원인 .....	73
(1) 사회구조(메커니즘)의 불균형으로 인한 증오심리의 발생 .....	73
(2) 증오동기의 초기형태인 하위계층의 이상심리 .....	77
(3) 복수의 문화에서 비롯된 중국형 증오범죄 .....	82
(4) 증오범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통치 .....	84
6. 증오범죄의 대책 .....	88
(1) 중국의 증오범죄 대책 .....	88
가. 형법을 통한 해결 .....	88
나. 보안처분을 통한 노력 .....	89
다.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94
(2) 한국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 건의 .....	96
가. 법률 제정을 통한 해결 .....	96
나. 보안처분을 통한 해결 .....	97
다. 사회적 노력을 통한 해결 .....	99
7. 결론 .....	103
참고문헌 .....	105

##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가: 중국

2. 훈련기관: 산둥대학(山东大学, SHANDONG UNIVERSITY)

3. 훈련분야: 범죄분석분야

4. 훈련기간: 2018. 7. 16. - 2020. 7. 15.

## 훈련기관개요

### 1. 기관개요

○ 훈련국 : 중국

○ 산둥대학, 위해 (山东大学 威海)

○ 인터넷 웹 주소: <https://www.wh.sdu.edu.cn>

○ 기타

- 주소: NO.180 Wenhua Xilu, Weihai, Shandong, P. R. China, 264-209 (中国 山东省 威海市

高区 文化西路 108号)

- 전화/팩스: +86-631-568254/568756/568016

Fax: +86-631-568787

- 이메일: [studyweihai@163.com](mailto:studyweihai@163.com)

## 2. 기관 연혁

- 산둥대학은 중국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합 국립대학이고 중국교육부에 직속 되어 있는 중점대학 중의 하나이다.
- 산둥대학 전신은 1901년(청정부 광서황제 27년) 중국 제남에 창립한 관립(官立)산둥대학당이다. 건교 이래 산둥대학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개혁되고 있다. 최초의 청왕조후기부터 중화민국 또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까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 시대를 겪어왔으며 사회주의 두개 역사계단을 겪어왔다.
- 그 기간에 산둥대학은 폐교, 재건설, 학교합병, 또한 열 몇개의 대학으로 나뉘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조국을 위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호평을 받음.

### <연혁>

- 1901년, (청나라 광서 황제 27년) 청나라정부 산둥대학당 설립
- 1926년, 국민정부 성립 산둥대학교 설립
- 1930년, 국민정부 국립 청도대학교 설립

- 1951년, 산동대학과 화동대학교 합병, 산동 대학교로 명명.
- 1984년, 교육부비준으로 산동대학교 웨이하이 분교 설립.
- 2000년7월 , 기존의 산동대학 , 산동의과대학교, 산동공업대학교가 합병되어 새로운 산동대학교설립.

### 3. 기관 소개

- 1984년에 설립된 산동대학교(위해)는 교육부 직속의 거점 종합대학이며, 중국 교육부"211공정"과"985공정"에 속한 11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국립 산동대학교의 중요한 캠퍼스이다.
-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아름다운 해변도시인 위해시에 자리 잡고 있는 본 대학은 총면적이 40만평이고, 건축면적은 15만여평이다.
- 본 대학의 학교규모, 학과개설, 교육수준, 교육조건 등은 3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현재 본 대학교에는 경상대학, 법정대학, 인문대학, 한국학대학, 외국어대학, 예술대학, 해양대학, 공과대학, 천체물리대학, 수학대학 등 10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평생교육원, 국제교육학원 등 2개 교육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 그리고 43개의 학부전공, 42개 석사과정, 17개 박사과정을 통해 박사, 석사, 학사는 물론이고 유학생을 양성하는 다차원 교육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현재 학부생 수는 15,000여명이고, 대학원생은 1,000여명, 미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은 500여명으로 총 학생 수는 15,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밖에도 교직원 1,200여명이 근무중이다.

#### 4. 법학대학 소개

○ 산동대학교 위해캠퍼스 법학대학원은 1995년에 설립하였으며 설립당시에는 법학과로 시작하여,

○ 2004년 6월에는 법학대학원으로 승격. 현재 위해 캠퍼스내 정교수는 13명, 부교수는 21명, 박사지도교수급 교수는 7명, 석사지도교수급 교수는 19명이 있다.

## 훈련결과보고요약서

<b>성명</b>	김 병 우		
<b>훈련국</b>	중국	<b>훈련기간</b>	2018.7.16 - 2020.7.15.
<b>훈련기관</b>	산동대학	<b>보고서</b>	108매
<b>훈련과제</b>	범죄분석분야		
<b>보고서 제목</b>	중국의 증오범죄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내용 요약

#### 1. 서론

○ 최근 들어 중국각지에서는 보복성범죄와 집단적 폭력범죄 등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

- 이들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돌발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범죄동기에 있어서는 반사회성을 띄고 있고

- 범죄 수단이 매우 잔인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는 형법학 및 범죄학의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범죄를 증오범죄라고 새롭게 정의

※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와는 다르게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다.

○ 본 글은 최근 중국 증오범죄의 발생의 전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증오범죄의 주요특징을 정리하여 증오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증오범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목표

## 2. 증오범죄의 문화배경

○ 중국의 고대 씨족(dan)사회에서 복수문화는 매우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었으며 주로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의 형태로 많이 발생

- 개인의 원한으로 시작한 복수는 끝내는 가족 간의 복수로 변질

○ 중국의 복수문화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봉건적인 논리와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근본적으로 증오범죄를 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수범죄 실행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

○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복심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 복수는 점차 당대에 유행하는 일종의 도덕적 수단

## 3. 증오범죄의 개념

○ 증오범죄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범죄의 한 종류, '증오범죄'라는 용어는 20세기 80년대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

○ 증오범죄의 개념은 처음 미국에서 사회여론과 정치에서 사용하기 시작, 점차 법률의 영역까지 확장

○ 중국의 형법학계에서는 증오범죄의 정의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 없으나 크게 세가지 관점으로 중국형 증오범죄에 대해 정의

- 첫번째는 "증오범죄는 행위자의 자신의 문제, 가족, 사회 등 다양한 원인(요소)으로 인하여 타인, 국가기관, 특정단체 혹은 사회에 대한 증오가 생겨 발생한 범죄"

- 두번째는 "증오범죄는 편견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며 전부 혹은 일부의 타인의 인종, 종교, 장애, 성적취향에 대한 심각한 편견으로 타인의 신체, 재산,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

- 세번째는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에 따른 증오범죄의 정의는 "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혹은 인지가능한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혹은 성적취향(性的趣向)의 편견, 악의적인 동기(動機)때문에 행한 범죄"

#### 4. 중국의 증오범죄 사례

○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는 급속한 발전, 사회구조의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 도덕개념, 생활방식 등 여러 방면에 많은 변화, 증오동기로 인한 증오범죄의 형사사건이 많이 발생

- 이러한 증오범죄 사건은 대부분이 폭력적인 경향을 띄며 다발성(多發性), 전파가능성(傳播可能性) 등의 특징, 사회 화합과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

○ 증오범죄의 피해자의 각도에서 따른 범죄 분류를 하게 되면 증오범죄는 크게 4가지 유형

- 부자에 대한 증오(仇富犯罪), 관료(공무원)에 대한 증오(仇官), 의료인에 대한 증오(仇醫犯罪),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증오(仇弱犯罪)

## 5. 증오범죄의 원인

### ○ 중국의 사회구조(메커니즘)의 불균형으로 인한 증오심리의 발생

- 증오범죄의 발생은 사회구조의 변천에 따른 사회구조의 불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구조의 불균형한 발전은 증오범죄 형성의 외적인 메커니즘이며 사회속에서 개인의 갖는 증오감정의 감정의 시작점

### ○ 증오동기의 초기형태인 하위계층의 이상심리

- 장기빈곤으로 인한 비관정서와 억압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자아의 심리조절의 불균형이 초래, 극단적인 사회보복 정서를 발생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극심한 자기 실망을 범죄라는 수단으로 표출

### ○ 증오범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통치

- 사회 하위계층민, 정부, 기타 계층 간의 충돌로 나아가 하위계층의 항거를 유발하여 증오범죄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

## 6. 중국의 증오범죄 대응방안

### ○ 형법내 개별 법조문

-중국의 증오범죄 형법에 따르면 "제 249 조 민족 증오 선동죄와 민족차별죄", "제 251 조 종교신앙의 자유침해죄, 소수민족에 대한 풍속침해죄" 등 증오범죄와 관련된 개별 법조문으로 범죄 대응

### ○ 보안처분을 통한 노력

-중국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확산방지 및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안처분의 일종인 "신장(新疆)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를 설립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법률교육, 대상자의 법치의식을 고취 및 재범 예방

-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사회적응
- 종교교육을 통한 세뇌된 종교적 극단주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제거
- 전반적 사회질서가 안정되고 지역내 경제활동에 긍정적 역할
-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정책적으로 지역 간의 교류를 늘려 민족 간의 괴리감을 줄이도록 노력
  - 신장의 각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소수민족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을 높여 취업을 개선하려 노력
  -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여 공무원과 기업간의 부정한 청탁을 근절, 반부패 척결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

## 7. 한국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 건의

- 법률 제정을 통한 해결
  - 증오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증오범죄 가중처벌법"과 "증오범죄 통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증오범죄의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범행이 발생시에는 보다 엄격히 처벌
- 보안처분을 통한 해결
  - 중국의 "신장(新疆)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그러나 보안을 통한 전문적인 증오범죄 교정센터 설립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증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판결과 동시에 수강명령.
- 사회적 노력을 통한 해결
  - 고위공무원의 부패 척결을 하여 사회전반에 팽배하여 있는 국민의 울분을 해소하고 기회 평등 사회를 건설

-국가적 차원에서 PTSD(외상 후 우울장애)연구 및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을  
늘려 증오범죄를 예방

## 8. 결론

○ 증오범죄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범죄이자 사회현상이다. 형법학계 및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근본적인 해결 가능

## 1. 서론

최근 들어 중국 각지에서 보복성범죄와 집단적 폭력범죄 등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 약자대상의 구타사건, 여자 혐오 관련 구타사건 및 살인사건, 외국인 노동자 등 인종관련 구타 사건 등 증오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중이다.

이들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범죄 대상의 불특정성, 돌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무고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범죄동기에 있어서는 반사회성을 띄고 있어 범죄 수단이 매우 잔인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오범죄로 인하여 국가의 안보, 사회의 질서,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다민족 국가 혹은 다문화 국가로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또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학자들은 여전히 한국, 중국의 증오범죄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형법학계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개념, 유형, 특징 등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증오범죄의 원인연구에 대해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범죄원인의 연구는 범죄해결의 기본이며 증오범죄의 발생을 줄이고 종합적인 해결능력의 배양을 위해 증오범죄의 원인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증오범죄와는 다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 발생중인 증오범죄와 발생배경, 원인, 수단 등에서 많은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사회학, 형법학, 범죄학의 연구 분야에서 이러한 범죄를 아시아형 증오범죄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증오범죄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접근에 따라 본 글은 중국의 증오범죄 발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원인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증오범죄의 발생의 전형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증오범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고 중국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인 증오범죄 대응방안을 연구였다.

본 글은 한국과 유사한 중국의 증오범죄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증오범죄의 개념

### (1) 증오범죄의 문화배경

중국의 증오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복수문화는 증오범죄의 발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증오범죄의 발생은 범죄자 자신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불공평 혹은 불공정으로 인하여 장시간 억눌렀던 범죄자 자신의 복수의 심리를 부자, 여자, 약자 등 무고한 시민에게 잔인한 수단을 사용하여 복수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수문화의 연구는 증오범죄의 연구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가. 중국 고대의 복수 문화

### (가) 복수문화의 유래

중국의 고대 씨족(dan)사회에서 복수문화는 매우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었으며 주로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 Lex Talionis)의 형태로 많이 발생하였다. 동해보복법은 일종의 증오심리의 작용 아래 복수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같은 씨족이 다른 씨족으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면 가해자에게 같은 크기의 피해를 주면서 복수를 하는 것이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신 19:21)”라는 성경 구절처럼 법적인 제약이 없던 원시사회에서 동해보복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었다.

침해를 받으면 피해자는 원수를 찾아가 받은 만큼 똑같이 해를 입히게 되는데 피해자의 복수행위는 부족사회내의 구성원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인정을 받았다. 설사 복수가 실패로 그치게 되더라도 그 가족의 구성원이 계속해서 복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기도 하였다.

결과 개인의 원한으로 시작한 복수는 끝내는 가족 간의 복수로 변질되었다. 즉, 개인의 복수는 가족의 복수가 되었고 모든 가족이 힘을 합쳐 가족의 복수에 참여해야만 하였다. 가족에 대한 복수는 당시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의 책임이고 “복수는 하나의 신성한 의무”<sup>1</sup> 라고 여겼다.

혈족의 복수문화는 최초 씨족(dan)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씨족 사회제도의 유지 근간은 종법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종법제도 사회에서는 씨족(가족)은

---

<sup>1</sup> (中)瞿同祖: “中国法律与中国社会(중국법률과 중국사회)”, 《中华书局》, 2003年9月, 第2版, p. 73.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혈연을 중심으로 가족내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공통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같은 씨족끼리 혼인하여 씨족내 결속과 단결을 도모하였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결과 피를 나누지 않은 다른 씨족과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몇 대에 걸쳐 복수를 하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중국의 복수문화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봉건사회에 들어서면서 봉건계급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법률을 제정하였고 복수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봉건적인 논리와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근본적으로 증오범죄를 억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수범죄 실행에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보복심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고 복수는 점차 당대에 유행하는 일종의 도덕적 수단이 되었다.

예를 들면, 중국 한 (漢) 왕조의 통일국가 위업을 달성 후 '어진 정치'를 표방한 유교사상이 지배계급에게 받아들여졌는데 특히, 한 (漢) 무제가 동중서(董仲舒)의 "백가를 배척하고 오직 유가의 학술만을 존중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여 그 후 유가 사상은 점차 중국 봉건사회에 중요한 통치사상이 되었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다" <sup>2</sup> 라는 윤리규범을 제창한 유가사상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충(忠) 과 "효(孝)" 사상을 뿌리 깊게 심어 주었고 신하는 임금의 원수를 갚고 아들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윤리적,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sup>2</sup> (中)袁锦辉：“法律与复仇：理性的替代与秩序的重构(법률과 복수: 이성의 대체와 질서의 재개편)”，《法制与社会旬刊》，2011年，第10期。

'예(禮)'는 충효사상의 중요한 요소이며 계급통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근간이 되었다. 아울러 봉건적 친족제도와 도덕규범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효(孝)"는 국가 통치 유지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충·효·인·의를 대대적으로 주창(主唱)했고 한(漢)나라 때는 '효도'와 '청렴'을 내세워 인재를 뽑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에 대한 복수는 효를 다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예기(禮記)·곡례상(曲禮上)”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늘이고 아버지를 죽인자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sup>3</sup>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임금에게 충성을 다 하는 것이라고 하여 결과 봉건시대 통치자들이 주장한 도덕규범은 본질적으로 가족의 복수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 통치계급들이 도입한 유가의 충효사상은 점차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볼 때 비록 역사적으로 모든 왕조가 복수를 제한하려는 규정은 있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복수대상

복수의 대상은 다양한 사회 관습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생하며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과거 복수에 있어서 원수(怨讐)만이 고정된 복수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원수의 가족 모두를 복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

<sup>3</sup> (中)辛字鹤：“‘孝’의观念在北魏法律制度中的反映（‘효’의 개념과 중국 북위 법률제도에 반영）”，《运城学院学报》，2006年 第1期。

즉, 원수 자체에게 보복을 하는 행위와 원수의 친족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복수의 효과가 같기 때문에 원수(怨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씨족 사회에서는 가문의 영욕(榮辱)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신성한 의무로 여겼다. 즉,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가족은 단순히 한 개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수의 가족이 나의 가족에 대해 씻지 못할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한다."<sup>4</sup> 이러한 개인간의 원한은 가문 간의 증오로 쉽게 변질되었다. 결과 복수자는 비단 원수들 뿐 만이 아니라 원수의 가족도 복수의 대상이 되어 온 가문의 힘을 모아 복수를 하게 되어 가족간 대규모 집안 싸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둘째, 복수자는 원수에게 동등한 복수를 한다.

맹자의 진심상(盡心上)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살인하면 다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형을 살인하면 다른 사람은 똑같이 당신의 형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한다" 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원수도 똑같은 정신적 고통이나 물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복수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수 자체로 한정되며 원수의 부모 형제자매 등 가까운 친족과는 관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수가 도망쳐 피신하면 복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복수에 따른 유혈 희생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넷째, 그러나 복수자가 가해자 본인을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보복의 목표를 원수와 가까운 친족과 친구로 돌려 복수를 하게 된다.

---

<sup>4</sup> (中)瞿同祖: “中国法律与中国社会(중국법률과 중국사회)”, 《中华书局》, 2003年9月, 第2版, P. 74.

즉, 복수자는 마음속의 원한 때문에 해소할 방도가 없고 원수를 찾을 수도 없을 때 비로소 원수의 가족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다. 비록 원수를 복수할 수 없지만 원수와 가까운 사람에게 복수를 실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증오심리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원한이 너무 깊어 원수를 죽인 뒤에도 마음속 원한을 풀지 못하게 되면 원수의 친족에게도 복수의 심리가 이어지며 원수의 일가를 모두 죽여야 원한이 풀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 동진(東晉) '심충(沈充)'은 '오유(吳儒)'에게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가 죽기 직전과 오유에게 말하기를 '너가 대의를 가지고 나를 살려주면 우리 가문은 반드시 이를 후하게 갚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를 죽이면 네 종족은 멸(滅)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심충의 아들 "심강은 결국 오씨 가문을 멸하게 된다. <sup>5</sup>(〈태평어람- 481〉, 인왕은 〈진서〉).

#### (다) 중국고대 복수와 관련된 법률규정

과거 국가발생이전 또한 국가의 국가공권력이 사회질서를 지키기에 부족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력구제를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수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회체제 내부의 자기 완성이었다. 과거 개인의 복수는 일종의 자력구제의 일종이었으며 바로 사회질서를 수호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의 합의 또는 계약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이 성립하고 국가공권력이 충분히 강대해지면서 국가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문을 설치하여 사회모순을 해결하고 자구행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였다. 국법이 점차 가법을

---

<sup>5</sup> (中)宋守义: “唐代复仇问题研究(중국의 당대 복수문제 연구)”, 《青海师范大学》, 2010 年.

대체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복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결국에는 국가만이 범죄를 징벌할 수 있고 기타 다른 사람이 사사로이 복수를 금지하여 복수 문화 근절의 풍조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고대사회는 대체로이 과정을 거쳤지만 국가발생이후에도 복수풍조가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법 자체가 복수의 정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대 오륜(五倫)중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적 풍토가 강하여 부권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데 도의적인 지지를 제공하였다.

주례《周禮》에서 복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관리인 '조사(朝士)'와 '조인(調人)'이 복수를 담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를 찾아서 원수의 이름을 등록한 뒤 그 원수를 죽이면 처벌이 면죄되는 것이다. 또한 조인은 화해를 주도하며 쌍방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 유혈사태가 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한대(漢代)에 이르러서는 서한(西漢)의 한무제(漢武帝)를 시작으로 유가사상은 봉건 통치자에 의해 정통사상으로 추앙을 받았다. 아울러 사법기관에서도 법령체계에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법관은 유학사상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데 유학사상을 법률의 체계의 위에 둔 것이다.

범죄의 동기가 유교사상에 부합하는 경우 가벼운 처벌을 내리거나 심지어 죄를 사면해주는가 하면 범죄의 동기가 유학사상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결될 경우 사건의 원인과 내용에 상관없이 중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사법관이 임의로 행한 판결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한장제(漢章帝)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원수를 죽인 효자(孝子)에게 온정을 베풀어 사형을 면제하는 등 유교사상에 부합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사건도 선례 따라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조령(凋零)을 내리는 등 정식으로 '경회법(輕悔法)'을 제정하였다.

동한말(東漢末)에 이르러서 국가 법률은 사적 복수를 금지하였고 원(元)나라가 복수를 허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명(明)·청(淸)나라까지 복수를 금지하는 법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특히 위진 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의 법률 규정이 가장 엄격하였는데 복수를 하면 연좌제에 의해 혈연의 삼대를 형벌에 처하였으며 위문제(魏文帝)시기에는 "복수한자는 온가족을 멸한다" <sup>6</sup> 라고 칙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당대(唐代)는 중국 봉건사회의 전성기였고 제정한 법률은 완벽히 예(禮)와 결합을 이루었다. 당률(唐律)은 사사로이 화해를 금하였고 만약 친족이 살해되었는데 국가기관에 고하지 않고 사사로이 원수와 화해를 나눈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였다.

또한 복수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였다. "복수를 하기 위해 살인을 시도하여 미수에 그치면 3 년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를 입히면 교수형에 처하며, 살인을 하게 되면 참형에 처한다." <sup>7</sup>라고 하였다.

명(明)나라와 청(淸)나라 법률에는 복수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였다. 만약 조부모 또는 부모가 원수에 의해 살해되면 그 자손은 살인범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고 죄를 면제받게 하였다.<sup>8</sup>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살인한자는 자기의 목숨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예외로 법외로 자비를 베풀어 복수의 죄값을 면제받을

---

<sup>6</sup> (中)梁治平：“法意与人情(법의 의미와 인정)”，北京：中国法制出版社，2004年1月，第1版，p. 71.

<sup>7</sup> (中)徐晓光：“‘伦理法’观点的理论缺欠(‘논리법’관점에서의 이론 결함)”，《凯里学院学报》，2008年1期.

<sup>8</sup> (中)梁治平：：“法意与人情(법의 의미와 인정)”，北京：中国法制出版社，2004年1月，第1版，p. 71.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법률은 전통 예법과 도덕에 배치되며 항상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모순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때마다 법외로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복수주의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되었으며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나. 서양의 고대 복수 문화

서양의 고대에서도 복수는 일종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간의 본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씨족,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원시 부족사회를 건설하였으며 복수는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사회 풍조이며 씨족의 구성원이 부족의 이익을 위해 복수를 하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엥겔스는 “같은 씨족끼리 반드시 서로 돕고 보호해야 하며 다른 부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복수를 해야 한다.”<sup>9</sup>고 하였다.

원시사회의 복수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사실 중국과 서양의 고대 복수문화는 큰 틀에서 비슷하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로 고대 서양 복수 문화에서 복수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서술할 예정이며 역사적으로 비교적 영향력이 큰 고대법전과 종교관련 서적을 통하여 서양의 복수 문화에 대해 분석 및 중국의 고대 복수문화와 서로 비교하겠다.

#### (가) 고대법전 중 복수와 관련된 규정

---

<sup>9</sup> 엥겔스: “马克思·恩格斯, 第4卷” “家庭、私有制和国家的起源 (가정, 사유제와 국가의 기원)”, 《人民出版社》1972年, 第1版, p.83.

세상에 현존하는 고대 법전은 대부분 보복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중 일부 법전은 동태복수(同態復讐)에 대한 처리와 규정이 비교적 완전하고 내용도 상세하여 당대의 복수문화 연구와 역사 고증을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비교적 유명한 것은 쿠바 바빌론 왕국의 6대 지배자인 함무라비왕(BC 1792 ~ BC 1750)이 만든 함무라비 법전(Code of Hammurabi, BC 1750)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완전히 보존된 최초의 고대 성문법이며 다른 하나는 고대 로마가 제정한 12 표법(lex duodecim tabularum)이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형법 관련 규정 중에는 '같은 원한에는 같은 방법으로 복수한다'라는 동태적 복수원칙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시사회의 사적(私的) 복수, 약탈혼, 혈족 간의 집단 복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복수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동태적 복수원칙은 모든 계층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아래의 조문과 같이 자유인 계층에 한해 적용되었다.

- 제 196 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 제 197 조: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 제 200 조: 만일 가격하여 자유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도 가격하여 이를 상하게 해야 한다.<sup>10</sup>

<sup>10</sup> (中)霍存福: “复仇·报复刑·报应说: 中国人法律观念的文化解说 (복수·보복형, 인과응보설)”, 《吉林人民出版社》, 2005年1月版, p.132.

표 1 < 함무라비 법전 中, 동태복수원칙 관련 조문 >

위와 같은 조문은 자유인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형법으로 동해보복형을 시행하고 과거 혈족의 복수의 방법과 같이 잔인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다른 계층 간에는 동등한 보복형을 시행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금전적 배상의 방법으로 대체하였다.

- 제 199 조: 자유민의 노예에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골절하게 되면 노예의 가격에 반을 지불한다.
- 제 201 조: 자유민의 이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3 분의 1 미나를 배상해야 한다.<sup>11</sup>

표 2 <함무라비 법전 中, 금전적 배상 관련 조문>

자유인 사이의 상해 처벌과는 달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급이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을 침해하여 받는 처벌은 현저히 가볍다. 또한 동태복수 대신 경제적 배상이라는 규정이 있어 자유인들 사이 치고 받고 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sup>11</sup> (中)霍存福: 위의 책, p 132.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함무라비 법전'의 보복형 규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원시 사회의 혈족 복수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엄격한 방법으로 범죄를 처벌하고 기타 다른 양형 기준이 없다. 이점은 중국의 원시사회와 다른 점이다.

둘째, 사회에서 지위 및 계층에 따라 적용 받는 형벌의 기준이 다르다. 각 다른 계층에 적용되는 형벌이 다른 것은 노예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사회계층이 높은 사람은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향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동해보복형과 경제배상을 결합하는 처벌원칙은 역사적으로 큰 형벌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 고대에도 재물이나 노동을 제공하고 죄나 형벌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지만 과실에서 비롯된 범죄에 국한됐고 함무라비 법전은 이와 달리 과실(過失)뿐만 아니라 고의(古意)에서도 일부 적용됐다.

12 동판법이라고 불리는 12 표법(Leges Duodecim Tabularum)은 기원전 450년 전에 제정된 로마 최초의 성문법으로 로마법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2 표법 역시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원시적인 동태적 복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동해(同害)보복형을 적용하지 못했다. 형법과 관련된 행위를 규정한 8 표 2 조에 규정된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한 곳을 상해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면 그 자신도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8 표 3 조에는 '자유인의 뼈 하나를 부러뜨리면 300 아스, 노예의 뼈를 하나 부러뜨리면 150 아스의 벌금을 물게 한다.', 12 표에는 '밤중의 도둑은 죽여도 된다.'<sup>12</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

<sup>12</sup> 몽테스키외: “论法的精神 (법의 정신)” 上册, 张雁深译, 《商务印书馆》1995年版 p. 94.

## 제 8 표 (형법관련)

- **8 표-2 조:** 어떤 자가 (타인의) 지체를 불구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피해자>와 화해하지 않으면 동해보복을 한다.
- **8 표-3 조:** 어떤 자가 손이나 곤봉으로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경우에는 300 아스의, 노예의 경우에는 150 아스의 벌금을 문다.
- **8 표-4 조:** 어떤 자가 (기타의) 신체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25 아스를 벌금으로 한다.
- **8 표-9 조:** 수확한 농작물을 야밤에 가축에게 먹인 행위와 절취한 행위는 성숙자에게는 케레스 신수에 효수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명하고 미성숙자는 법무관의 재량으로 태형이나 1 배액 혹은 2 배액의 배상을 하도록 명한다.
- **8 표-10 조:** 건물을 소실 시키거나 집 가까이에 쌓아 놓은 노적가리를 소실시킨 자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를 범한 것인 한 포박되어 태에 처한 후 화형으로 사형에 처해지도록 명해진다. 그러나 우연히(과실)범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해지거나 혹은 그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다 경하게 징계한다.
- **8 표-11 조:** 위법하게 타인의 나무를 벌채한 자는 그루당 25 아스의 배상을 한다.
- **8 표-12 조:** (어떤 자가) 야밤에 절도를 한 경우에는 그를 (어떤 자가) 살해하더라도 그는 적법하게 살해된 것으로 한다.
- **8 표-16 조:** (절도 피해자가) 현행범이 아닌 절도를 이유로 소추하는 경우에는...(피고는) 2 배액으로 손해를 배상한다.<sup>13</sup>

<sup>13</sup> 네이버 백과사전: “로마인 이야기” 2019. 10. 12 검색

<http://jus.snu.ac.kr/%7Eromanist/lecture/roma/xii-tafei.html>

표 3 <12 표법 中 제 8 표 (형법관련) 조문>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개인간의 상해죄는 당사자간 먼저 합의할 수 있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비로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동해보복형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의 특징은 당사자 쌍방이 먼저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개인간의 합의가 재판보다 우선 적용되었다.

비록 한국, 중국 등 동양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해 개인 합의가 있긴 하였지만 경미한 상해, 민사사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12 표법”은 동해보복형과 개인합의 제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어 야만적이고 잔인한 복수를 피할 수 있었고 타인에 대한 과실치상 행위에 대하여 범죄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민사권리침해행위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함무라비 법전에서의 동해보복형보다 더 발전된 법전으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종교 경전중의 보복형

종교는 서양사회의 근간이자 중요한 힘이 되고 있는데 특히, 과거 기독교는 사람들의 정치, 경제,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었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규범이 되는 책으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도들에게 아직도 많은 원칙과 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자민(하느님의 자손)간에 신성의 의지를 준수하는 일종의 약속이며 신과 인간과의 계약이다.”<sup>14</sup>

앞부분의 「구약」은 하느님과 고대 이스라엘인 사이에 체결한 약속이고 뒷부분의 「신약」은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하신 새로운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다.<sup>15</sup> 교회에 있어서 성경은 신성하고 모독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이며 교회는 성경에 담긴 정신과 원칙을 지침으로 교회법을 제정하는데 성경은 현대의 헌법에 해당하는 최고의 법적 효력을 지닌다.

구약(舊約)은 하나님과 옛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으로써 성경의 형법적인 내용은 주로 앞부분인 구약(舊約)에 나타나 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이자 민족적 영웅인 모세는 호렙산(시나이산)에서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돌아와 협력자 아론과 함께 그들을 구출하였으며 시나이 산(Sinai MT.)을 지날 때 주께서 반포하신 열 가지 계율 즉, 십계명(十誡命)을 받았다.<sup>16</sup>

그 중 뒷부분의 5 계명은 형법의 규정과 유사하다. 모세는 십계명의 ⑥, ⑦을 어길 경우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받았으며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처형되었는데<sup>17</sup>

---

<sup>14</sup> (中)何勤华、夏菲：“西方刑法史(서양의 형법사)”，《北京大学出版社》，2006年12月，第1版，p.129.

<sup>15</sup> 네이버 지식백과：“신약 성경”，2019.10.11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23526&cid=50762&categoryId=50768>

<sup>16</sup> 두산백과：“모세”，2019.10.11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681&cid=40942&categoryId=33431>

<sup>17</sup>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블 키워드』：“십계명 [Ten Commandments]”，2019.10.11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23545&cid=50762&categoryId=50770>

엄격한 동해보복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종족(宗族)도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십계명(十誡命)

- ⑤ 부모를 공경하라.
- ⑥ 살인하지 말라.
- ⑦ 간통하지 말라.
- ⑧ 도둑질하지 말라.
- ⑨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 ⑩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표 4 <10 계명 中 형법관련 율법>

이후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살인죄)과 과실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것(과실치사)을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과실치사를 범한 죄인은 복수자를 피해 도망갈 수 있었고 그가 도망을 간 도시는 그를 관리하게 되었다.

이때 도망자는 폰티팩스 막시무스(Pontifex Maximus) 즉, 최고의 사제가 죽은 후에 비로소 사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 도망을 다니는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자는 아무대서나 그를 죽일 수 있었다. 그 후 도망자의 종족(宗族)은 돈으로 도망자를 구해 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개인 합의를 하거나 속죄하지 못하며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했다.

성경의 해석으로 보아 죄인의 고의살인 행위에 대해 '피는 피로써 갚고, 이는 이로써 갚는다' 라는 절대적 동해형으로 살인자는 절대 사면할 수 없고 돈으로도 속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한 것이며 오직

하느님만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당시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구분하기 시작하여 과실치사는 죄인이 도망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심지어는 금전으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이것은 현대 형법의 사면과 형사합의를 의미하며 형법학적으로 큰 발전이 아닐 수 없다.

## (2) 증오범죄의 개념

### 가. 증오범죄 개념의 도출

증오범죄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범죄의 한 종류이다. 과거 원시사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복수현상이 있다. 그러나 '증오범죄'라는 용어는 20세기 80년대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존 코니어스(John Conyers), 바바라 케넬리(Barbara Kennelly), 마리오 비아기(Mario Biaggi)' 3명의 미국 상원의원은 연명으로 연방상원의원에 "증오범죄 통계법"의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연방사법부에게 인종, 성별, 종교, 편견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증오동기로 실시한 범행에 대한 발생건수와 범죄의 특징에 대해 수집하고 출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부터 '증오범죄'라는 단어는 점차 미디어와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증오범죄"의 입법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 세기 80 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연방정부와 여러 주에서 증오범죄법을 제정하고 실시하였고 인종, 종교, 성별 등의 편견이 범죄의 동기가 되어 발생한 범죄에 대해 개념을 수립하고 양형 기준을 규정하였다.

‘증오범죄’는 법률용어, 형법상의 한 범죄의 종류로서 미국사회에서 인종, 종교, 성별, 성소수자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범죄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생긴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증오범죄’는 일찍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과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세계 2 차대전이후 미국사회의 인권운동이 점차 고조되고 정치가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종교, 성별, 인종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종교,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 및 불공평 처우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증오범죄’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증오범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증오범죄의 개념은 처음 사회여론과 정치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점차 법률의 영역까지 확장하였다.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그룹이 받는 불공평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단체와 기구에서 점차 의견을 내놓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1990 년 결국 “증오범죄통계법 ( Hate Crime Statistics Act of 1990, “HUSA” ) 입법되어 시행하였다.

이 법안은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공표하였으며 이로써 증오범죄가 정식으로 법률상으로써 지위를 얻게 되어 형법상의 일부분이 되었다. 이로써 FBI 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자료의 표준(기준)을 규정하였다. 수집자료는 반드시 종교, 성별, 종교 등의 편견으로 생긴 동기만을 수집하였고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기소하는데 필수불가결하며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 나. 증오범죄의 개념

중국은 현재 급격한 사회적 전환 시기에 처해있다. 사회의 큰 전환기 단계에 있는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방면으로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적으로는 계층상승 가능의 부재 경제적으로는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더욱 뚜렷하게 되어 중국 국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쌓이게 되어 결국 증오범죄라는 형태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범죄의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의 결과가 참혹하며 중국내 사회 통합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증오범죄 연구는 중국의 형법학계 및 범죄학 이론영역을 비롯하여 사법의 실무영역에 이르기까지 아직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설령 연구가 진행이 되더라도 강력범죄 및 범죄심리학 연구와 관련하여 같이 연구가 진행되어 단독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증오범죄는 여전히 중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사회가 큰 사회적 전환기가 도래하면서 증오심리로 인하여 발생된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증오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증오범죄가 '과연 어떤 범죄인가의 연구를 시작으로 결국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현재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증오범죄는 문화적 배경, 국가의 상황, 사회배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의 증오범죄의 "Hate crime"과 다소 차이가 있고 본연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중국에서는 아직 증오범죄에 관하여 통일된 개념과 구체적인 정의가 아직 없다.

증오범죄라는 개념은 최초 미국에서부터 쓰게 되었으며 미국의 사회, 정치, 경제 등의 원인을 기반으로 특유의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연방정부에서 제정한 "증오범죄 통계법"중 증오범죄의 개념은 "행위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적취향 등의 편견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sup>18</sup>이다. 미국은 대체로 주(州)마다 증오범죄의 정의가 다르다. 그러나 증오범죄의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편견(偏見)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형법학계에서는 증오범죄의 정의에 대해 공통된 의견이 없다. 그러나 크게 세가지 관점으로 중국형 증오범죄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겠다.

첫번째는 “증오범죄는 행위자의 자신의 문제, 가족, 사회 등 다양한 원인(요소)으로 인하여 타인, 국가기관, 특정단체 혹은 사회에 대한 증오가 생겨 발생한 범죄”이다.<sup>19</sup>

두번째는 “증오범죄는 편견범죄라고 불리기도 하며 전부 혹은 일부의 타인의 인종, 종교, 장애, 성적취향에 대한 심각한 편견으로 타인의 신체, 재산,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범죄”이다.<sup>20</sup>

세번째는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에 따른 증오범죄의 정의는 “주로 피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혹은 인지가능한 인종, 피부색, 민족, 국적 혹은 성적취향(性的趣向)의 편견, 악의적인 동기(動機)때문에 행한 범죄”<sup>21</sup>이다

상기된 세가지의 관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들이 증오범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sup>18</sup> (美)James B. Jacobs & Kimberly A. Potter : Hate Crimes - A Critical Perspective[J]. 22 Crime & Just.1, 1997 The University of Chicago.

<sup>19</sup> (中)王文华: “‘仇恨犯罪’若干问题研究(증오범죄에 대한 연구)”, 《河北法学》, 2011年, 第4期, p.112.

<sup>20</sup> (中)顾为平: “美国仇恨犯罪论纲(미국 증오범죄연구)”, 《湖南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009年第10期.

<sup>21</sup> (中)王文华: “美国反‘仇恨犯罪’刑事法研究(미국의 반(反)‘증오범죄’형사법연구)”, 《中国刑事法杂志》, 2010年1期.

## 다. “증오범죄”와 관련된 개념 분석

중국의 “증오범죄”는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국가의 “Hate crime”과 “폭력범죄”, “폭력범죄”, “테러주의”, “군중소요사건과”는 다소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증오범죄(Hate Crime)는 오래전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하였지만 증오범죄의 개념은 최초 미국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Hate Crime”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등 문화배경이 내포되어 발생한 중국의 증오범죄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증오범죄의 연구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형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미국은 1990 년도에 제정된 “증오범죄통계법”을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폭행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증오범죄 가중처벌법 (Hate Crime Sentencing Enhancement Act)”, 2009 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 지방 증오범죄방지 집행법(Federal Local Law Enforcement Hate Crime Prevention Act, LLEHCPA)” 등 중요한 증오범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집행기관에서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증오범죄를 해결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와 상반적으로 중국에서 증오범죄에 관하여는 아직 형법학계 및 실무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며 증오범죄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미국 등 서방과 달리 중국은 인종, 종교, 성적취향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증오범죄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력을 미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증오범죄는 미국의 “Hate crime”과 다른 점이 아래와 같다.

## (가) 의미

1990 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증오범죄통계법”에서는 증오범죄를 “행위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인종, 종교, 민족, 국적, 성적취향 등의 편견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sup>22</sup> 라고 정의를 하였다. 또한 일부 학자는 증오범죄를 “행위자가 전부 또는 일부의 인종, 이민자신분, 종교, 장애(에이즈 등 질병포함), 성별, 성적취향의 편견으로 인하여 타인(기업, 기관, 사회조직, 특정단체)의 신체, 재산에 해를 끼치는 범죄”<sup>23</sup> 라고 정의하여 편견을 바탕으로 범죄를 실시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증오범죄는 증오범죄의 행위자 본인이 내재된 증오심리를 표출하는 것이며 고의로 폭력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 재산,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치안을 어지럽혀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 (나) 범죄의 주관요소 “동기”

미국의 “Hate crime”은 인종, 종교, 국적, 성적취향 등의 편견, 차별의 동기를 기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하여 중국의 증오범죄는 원한, 차별, 편견, 질투, 분노 등의 감정 요소가 범죄 동기가 원인이 되어 실시되는 범죄이다. 중국의 증오범죄는 미국의 “Hate crime”과 비교하여 외연상 광범위하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증오범죄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sup>22</sup> (美)James B. Jacobs & Kimberly A. Potter, *ibid*, p. 1.

<sup>23</sup> (中)王文华: “美国反‘仇恨犯罪’刑事法研究 (미국의 반(反) ‘증오범죄’ 형사법 연구)”, 《中国刑事法杂志》, 2010 年 1 期. p. 112.

미국과 중국의 증오범죄의 특징은 각 국의 역사 및 문화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은 이민국가로써 여러 인종, 다양한 종교,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뒤섞여 융합되어 있는 2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신생 국가이며 이러한 인종, 종교, 이민문제로 인해 국가의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중국은 56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달리 중국정부는 표면적으로 소수민족 우대정책과 소수민족 자치권을 주어 소수민족을 회유하는 정책을 하였으나 사실상 소수민족 자치구를 공산당의 지배권내에 두어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 및 감시를 하였다.

예를 들면 티벳족(짱족)은 종교지도자를 선출할 때 독특한 방법으로 후계자를 선출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오랜 기간 내려온 티벳족의 종교지도자 선출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지도자를 임의대로 선출하여 티벳족의 독특한 종교, 문화를 말살시키고 그들의 자치권을 빼앗았다.

또한 신장지역의 위구르 민족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다. 그들은 항상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앙정부는 과거 총과 탱크 등 무력을 사용하여 시위자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였고 위구르 민족은 한족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 위구르족은 무고한 한족을 폭행하고 한족이 운영하는 상점을 부수는 등의 방식으로 증오를 표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종교와 민족갈등이 증오범죄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여전히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 (다) 배경

미국은 불과 약 2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써 인종, 종교, 국적, 성적취향 등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불안

요소들은 대량의 인명살상 사건과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사회의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증오범죄 통계법” 통계에 의하면 2014 년 미국의 증오범죄 발생건수는 5,479 건, 희생자수는 6,727 명이며 2018 년의 증오범죄 발생건수는 7,120 건, 희생자수 8,819 명으로 최근 5 년간 각각 약 30%, 31% 증가하였다. 세부 범죄동기를 보면 2018 년도 인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오범죄 건수는 4,047 건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흑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1,943 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종교로 인한 증오범죄 발생사건수 1,419 건으로 약 35%를 차지하며 유대교인과 무슬림에 대한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성적취향으로 인한 증오범죄는 발생수는 1,196 건이고 비율이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sup>24</sup>

미국의 증오범죄 통계를 볼 때 증오범죄는 최근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인종, 성적취향, 종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오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사회에는 증오범죄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였다. 이러한 희생으로 인해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증오범죄의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페미니즘 단체에서는 꾸준히 정부에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하여 이를 계기로 학계 및 정부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오범죄에 대한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과 비교하여 중국은 특유의 역사와 문화배경으로 인하여 증오범죄가 발생하였다. 증오범죄는 중국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씨족시대의 “혈족 복수”는 전통적인 복수문화가 발생하는데 큰 원인이 되었으며

---

<sup>24</sup> (美) FBI, ” HATE CRIME STATISTICS ” , 2019. 11. 26 검색.

<https://ucr.fbi.gov/hate-crime/2014/tables/table-1>

<https://ucr.fbi.gov/hate-crime/2018/tables/table-1.xls>

복수문화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류가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게 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사회를 겪으면서 물질적으로 평등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기가 큰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회는 점차 물질만능주의로 팽배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과 각 사회 계층간 이해 갈등은 고조되었고 또한 충돌도 증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안정에 위협을 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역사적 배경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혼란은 증오범죄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증오범죄와 중국의 증오범죄는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행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양자 모두 범죄의 본질은 내적으로 존재하는 증오심리를 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손실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라. 증오범죄와 폭력범죄

폭력범죄란 행위자가 고의를 가지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여 형벌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하였다.<sup>25</sup>

---

<sup>25</sup> (中)王永兴：“暴力犯罪：一个概念的解读（폭력범죄：하나의 개념으로써 해석）”，《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2010年5期。

증오범죄와 폭력범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 (가) 분류의 기준

증오범죄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증오동기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 다른 범죄와 다르며 행위자는 증오범죄의 동기하에 범죄행위를 실시한다. 반면 폭력범죄는 폭력의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에 해를 가한다는 점이 기준이 된다.

행위자는 자신의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폭력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오범죄는 일종의 “동기범죄” 유형이고 폭력범죄는 일종의 “수단범죄” 유형이다.

#### (나) 범죄의 주관요소

증오범죄는 증오심리가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로써 이러한 증오심리는 질투, 혐오, 분노, 차별, 편견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폭력범죄는 한가지 혹은 여러가지의 동기가 원인이 되며 증오의 동기(動機)뿐만 아니라 물욕, 치정, 이익의 충돌 등의 동기가 원인이 되어 실시된다. 폭력범죄의 동기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증오범죄의 동기보다 광범위하고 폭력범죄의 동기는 증오범죄의 동기를 포함하게 된다.

#### (다) 범죄의 객관요소

폭력범죄는 폭력의 수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의 태양(態樣)과 수단이 비교적 잔인하여 신체 혹은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조직적

범죄일수록 더욱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폭력범죄는 주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회치안유지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증오범죄는 폭력의 수단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언어 등을 이용하여는 비폭력적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이 비폭력적 수단을 이용한 증오범죄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마. 증오범죄와 테러리즘

### (가) 증오범죄와 테러리즘의 공통점

증오 범죄와 테러리즘의 공통점은 두 범죄 모두 이성적인 범죄 준비단계를 통하여 비(非)이성적인 증오범죄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원인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증오범죄와 테러리즘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종류의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증오범죄를 개인 테러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증오범죄에 상응하는 테러리즘은 바로 조직적인 증오 범죄이다.

### (나) 증오범죄와 테러리즘의 차이점

증오범죄와 테러리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범죄의 주체가 있다. 증오범죄의 주체는 개인이고 테러리즘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단체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일명 "꺼로남"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증오범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2013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 약 10여일 동안 임모(諷)씨는 흉기를 사용하여 20여명의 여자의 팔과 등에 상해를 입혔다.

경찰의 조사 결과 임모씨는 광동성 선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넉넉치 않은 생활을 해오던 중 여자친구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하였고 임모씨는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게 되어 길거리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sup>26</sup>

한편 “쿤밍기차역 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테러리즘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3월 1일 윈난성 쿤밍시 기차역에서 “신장 분리독립 테러조직” 구성원 8명이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시민 29 명을 살인하고 143 명을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sup>27</sup>

증오범죄와 테러리즘의 차이점은 범죄의 주체에 있다. 증오범죄는 공동정범의 형태로 여러 사람이 범죄를 실행하기도 하지만 테러조직처럼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통의 목적아래 지속적인 결합체를 결성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오범죄는 테러리즘과 달리 최소한의 통솔 체계가 없고 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운남성 시샹반나 이족자치주 징공시에 사는 이모씨는 평소 징공시 소재 인민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결과 이러한 증오심리로 인하여 병원에 방화를 결심하고 쉬모씨, 메이모씨 커모씨, 랴오모씨 오양모씨 등 6 명과 함께 공동으로 방화를 모의하고 범행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통적인 목적은

---

<sup>26</sup> (中) 바이두(Baidu, 百度) 백과사전: “割肉男(꺼로남)” 2019. 12 .21.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5%89%B2%E8%82%89%E7%94%B7/10051053?fr=aladdin>

<sup>27</sup> (中) 法律图书馆, 陈月, “昆明火车站恐怖袭击事件(윈난성 쿤밍기차역 테러사건)” 2019. 10. 30. 검색.

[http://www.law-lib.com/flsz/sz\\_view.asp?no=2619](http://www.law-lib.com/flsz/sz_view.asp?no=2619)

있었지만 지속적인 결합체라고 보기가 어렵고 정치적인 목적을 결여하여 테러리즘에 속하지 않으며 증오범죄라 할 수 있겠다.<sup>28</sup>

## 바. 증오범죄와 미신범죄

### (가) 증오범죄와 미신범죄의 공통점

미신범죄는 미신으로 인한 강한 믿음으로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하여 스스로 위법행위에 대한 행동을 억제를 하지 못하여 생긴 범죄이다. 예를 들면 허난성 진평현 정치협회 부주석인 우모씨는 음(陰)을 통하여 양(陽)을 얻어 장수할 수 있고 관운이 형통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어린 여자아이 100 명을 강간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증오범죄와 미신범죄는 모두 비이성적인 범죄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이성적인 동기로 인하여 행위자의 이성을 더욱 상실하게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 (나) 증오범죄와 미신범죄의 차이점

증오범죄와 미신범죄의 주요한 차이점은 두 범죄의 동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증오범죄의 동기는 증오와 분노이며 증오의 대상과 범행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sup>28</sup> 中国新闻网, 马骞, “云南西双版纳医院纵火案成功告破 6 人被捕(원난성 시왕만나 방화사건 혐의자 6 명 체포하여 사건해결)”, 2019. 10. 30. 검색.

<http://www.chinanews.com/fz/2013/04-27/4771182.shtml>

한편 미신범죄의 동기는 귀신에 마음이 홀리듯이 행위자의 잘못된 믿음이며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맹목적인 감정 하에 범행을 감행한다. 예를 들면 2001 년 허베이성 시자좡시 진모씨는 가정불화로 인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무고한 시민을 살인을 하였고 건물을 폭파하여 108 명이 사망하고 38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미신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범죄의 객체에 대해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미신 등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하여 위법행위를 행한 것이다. 한편, 증오범죄는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서 상기사건은 전형적인 증오범죄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sup>29</sup>

### 3. 증오범죄의 대표사례 분석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사회는 급속한 발전, 사회구조의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관, 도덕개념, 생활방식 등 여러 방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중국의 사회는 여러 계층 간의 갈등이 생겨났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증오를 표출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었다.

---

<sup>29</sup> (中) 바이두(Baidu, 百度) 백과사전: “石家庄 ‘3·16’ 特大爆炸案(시자좡 ‘3·16’ 거대 폭발 사건)” 2019. 10 .21.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7%9F%B3%E5%AE%B6%E5%BA%84%223%C2%B716%22%E7%89%B9%E5%A4%A7%E7%88%86%E7%82%B8%E6%A1%88/15211783?fr=aladdin>

이러한 증오범죄 사건은 대부분이 폭력적인 경향을 띄며 다발성(多發性), 전파가능성(傳播可能性)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회 화합과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중국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증오범죄 사례 연구가 극히 드물었고 증오범죄의 특징과 원인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매우 적어 그 동안 증오범죄의 예방 및 그 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문은 문헌조사연구와 개별사건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증오범죄의 유형, 주체, 동기, 행위방식 등 방면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중국형 증오범죄의 원인을 심층적이고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중국과 상대적으로 유사한 한국형 증오범죄에 대해 예방책 및 형사정책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문의 연구과정에서 중국은 범죄 데이터 통계 시스템이 한국보다 많이 부족하고 증오범죄의 전문적인 통계가 결여된 것이 많아 시간적 장소적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례를 통계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본문은 2010 년 이후 인터넷 · 신문 등 주요 매체와 학술지를 통해 공개 · 발표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형적인 증오범죄를 문헌 조사법으로 수집하였다.

사례로는 “흑룡강성(省) BMW 남 살인사건 등 부자증오”, “푸젠 난핑(福建省 南平), 광시 평남 ( 广西平南 ), 후베이 시옌 ( 湖北十堰 ), 장쑤 타이싱(江苏 泰兴) 등 에서 발생한 학교내 무차별 살인사건(약자에 대한 증오) ” , “온링“10·25” 의료인 살인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증오범죄(仇医)”, “광둥 차오안(广东潮安), 광둥 구시앙 ( 广东古巷 ) , 광둥 쩡청 ( 广东增城 ), 충칭 완성 ( 重庆万盛 ) 사건과 같은 개인적인 사소한 증오로 시작된 집단폭행사건” , “신장카시(新疆喀什) 84 변방수비대 공격 사건 등 관료(공무원)의 증오” 등 중국내에서 잘 알려져 있고 비교적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를 선택하였다.

## (1) BMW 남 살인사건 등 부자증오(仇富)

2012년 8월, 흑룡강성 하얼빈시 공안은 살인사건을 접수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BMW 승용차내에서 피해자가 불상인에 의해 목이 베어져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었다.

공안기관의 현장조사와 탐문수사를 통해 범죄피의자 조모(譙)씨를 확정하였고 2012년 8월 11일, 범죄피의자 조모를 체포하였다. 경찰기관의 조사의 과정에서 조모씨는 이미 강도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였고 교도소내에서 모범수로 가석방되어 일찍 출소를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매우 냉혹하였고 그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아무도 조모씨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조모씨는 경제적 수입원이 없어 지속적인 생활고에 봉착하게 되었고 또한 지역 주민들도 그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시켜 결국 그는 사회에 대한 분노가 견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사회를 향한 보복심리가 생기게 되었다.

조모씨는 평소 부자들을 증오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가진 재산은 모두 부정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자를 겨냥하여 범죄를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조모씨는 줄곧 하얼빈시의 여러 고급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적합한 범죄목표를 찾았고 특히,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고급차를 운전하는 젊은 남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2012년 8월 10일 새벽, 결국 조모는 술에 취해 혼자 집으로 운전을 하는 자를 발견하고 범행의 기회를 기다리다 마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길가에 세워 둔 BMW 차량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칼로 피해자의 목을 세차례 찔러 살해하였다.<sup>30</sup>

---

<sup>30</sup> 搜狐新闻, 李玉红, “‘宝马男’ 停车醒酒, 遭‘仇富男’ 割喉三刀死亡 (BMW 차주, 술을 깨기 위해 차를 정차중 부자를 증오하는 남성에게 칼로 목을 세차례 피습, 사망)”, 2019. 10. 2. 검색

<http://news.sohu.com/20120816/n350761383.shtml>.

이 밖에도 중국에서 부자에 대한 증오범죄는 특히,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많이 발생했다.

2003년 2월 12일 저장성(省) 부자 주모(譚)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부자 증오심리를 가지고 있는 폭도들에게 칼로 수십차례 찔리는 사망하는 사건, 2003년 8월 17일 간수성의 부호 류모씨가 폭도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 2004년 1월 22일 범죄혐의자 풍모씨는 산서성의 유명 사업가 리하이창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총을 머리를 쏘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연속하여 발생<sup>31</sup>하였는데 모두 부자에 대한 증오로 발생한 것이다.

## (2) 신장 카시(喀什) "8·4" 변방수비대 공격 사건 등 공무원·종교관련 증오(仇官)

2008년 8월 4일 아침 신장 카스 공안의 변방수비대의 장병들이 한 차례의 폭발테러 습격을 받았다. 그날 아침 8시쯤 변방수비대의 장병들은 일상적인 훈련 일정에 따라 아침체조를 하던 중 갑자기 큰 화물차 한 대가 매우 빠르게 달려들면서 도로 옆에 있는 전봇대에 부딪혔고 잠시 후 트럭에서 폭도 한 명이 내려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자체 제작 한 폭발물을 터뜨렸다. 다른 한 명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칼을 손에 들고 장병들을 난자하고 준비된 대량의 폭약을 터뜨려 결국 장병 17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용의자 두 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였고 경찰에 조사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택시 운전사와 시장 행상인으로 동 투르키스탄 무장단체들의 지령을

---

<sup>31</sup> 人民网, 阿良, “李海仓之死: 如何保护中国富豪的生命财产安全(리하이창의 죽음: 중국부호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 2019. 10. 2. 검색

<http://www.people.com.cn/GB/wenhua/22226/31113/31114/2266566.html>.

받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감행하여 신장 지역의 사회 안정에 위해(危害)를 가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두 사람은 오래전 이번 테러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변방수비대 장병들의 아침 체조를 하는 시간과 장소를 한 달 넘게 관찰했고, 범행 전 폭발물을 대량으로 만들고 외부에서 총기와 탄약을 구입했다. 이들은 이번 테러의 목적이 사회 치안을 어지럽히고 공황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른바 '지하드(성전)'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백했다.<sup>32</sup>

이처럼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편견으로 국경수비대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국가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었다.

그 밖에도 2000 년이후 중국사회는 국가관료(공무원) 증오범죄사건이 자주 보도되었으며 또한 대중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2004 년 8 월 19 일 허베이성 싱타이시 반부패국(反腐敗局)국장 리회성 주택 폭파사건, 2006 년 11 월 27 일 폭도들이 귀이주 련셴현(縣) 현장(縣長) 원젠강의 일가족을 습격해 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건<sup>33</sup>, 2006 년 1 월 6 일 오전 간쑤성 민락현 법원이 폭도의 공격을 받아 폭도가 법원에 폭약을 대량으로 투척해 5 명이 사망하고 22 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3) 온링"10·25" 의료인 살인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증오범죄(仇醫)

---

<sup>32</sup> 东北网, 雷蕾, “喀什 8·4 暴力恐怖袭警致 17 死 15 伤 2 主犯判死刑(신장 카시 경찰에 대한 습격으로 17 명사망, 15 명 부상, 2 명의 주범에게 사형판결)” 2019. 10. 2. 검색.  
<https://legal.dbw.cn/system/2008/12/18/051663694.shtml>

<sup>33</sup> 搜狐新闻, 尹安学, “贵州兴仁县长一家六口被害, 群众怀疑是仇杀(귀이주 련셴현장(縣長) 일가족 6 명 피살, 군중은 증오살인으로 의심)”, 2019. 10. 2. 검색.

<http://news.sohu.com/20061201/n246746179.shtml>

2013년 10월 25일 오전 8시 범죄 피의자 렌씨는 비수(匕首)를 휴대하고 온링시 제1인민병원 이비인후과 진료실을 찾아 본인의 전 주치의에게 복수를 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 자신의 주치의는 자리에 없었고 그는 준비해온 비수를 꺼내 옆에 있던 왕모 의사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이때 또 다른 의사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시 비수를 휘두르게 되어 모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왕모 의사는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하게 되었다. 렌모씨는 그후 병원에 있는 경비원에게 제압되어 공안기관에 인계되었다.

공안기관에서 조사과정에서 렌모씨는 2013년 3월 온링시 제1인민병원에서 코부위 '최소절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그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지 못하여 늘 코속이 불편함을 토로하였고 여러 차례 주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치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른 이상소견이 없다고 일관하여 왔다. 렌모씨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수술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렌모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였고 본인의 코가 여전히 불편하여 여러 차례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역시 별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코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으로 그의 성격은 날로 파악해졌으며 심리 또한 왜곡이 되어 집에서도 자주 난폭한 성격을 보이기도 하였다. 끝내 렌모씨 가족은 그를 상해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코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자신의 심리에 큰 압박이 되어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주치에서 비롯되었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여 결국 온링시 제1인민병원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재판의 과정에서도 렌모씨는 일관되게 자신이 정신병 환자를 라는 것을 부인하고 살인행위시 사건의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서 그가 주치의에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의사들이 자초한 것이며 그래서 그가 의사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4</sup>

이 밖에도 2011 년 9 월 15 일 북경의 모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주임 쉬모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 한 괴한이 칼을 들고 진료실에 갑자기 난입하여 쉬모 의사에게 칼을 난자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 2011 년 11 월 1 일 광둥 모 병원의 주임의사 송모씨가 진료 중 환자가 갑자기 진료실을 습격을 하여 송모 의사에게 칼로 10 여차례를 휘둘러 살인한 사건, 2012 년 2 월 14 일 오전 허베이성(省) 모 병원의 이비인후과 주임 멩모씨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중 괴한이 칼을 들고 침입하여 같이 있던 2 명의 의사와 1 명의 환자에게 칼을 휘둘러 살인한 사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의료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4) 장쑤성(省) 타이싱 유치원 살인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오범죄

2010 년 4 월 29 일 범죄혐의자 쉬모씨는 칼을 소지하고 장쑤성(省)의 모 유치원에 난입하여 유치원생과 선생님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총 32 명이 중경상을 입혔으며 그 후 바로 경찰과 시민에게 제압을 되었다.

조사과정에서 쉬모씨는 당시 나이 47 세 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평소에도 자신의 부인과 이웃주민에게 자주 행패를 부리고 도박을 일삼아서 구류의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사건발생 이전 쉬모씨는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었다.

---

<sup>34</sup> 法制网, 先富, “温岭 “10·25” 杀医案二审维持连恩青死刑(온링 10·25 의사살인사건 2심에서도 사형)”, 2019. 10. 2. 검색

[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4-04/01/content\\_5418723.html](http://www.legaldaily.com.cn/index_article/content/2014-04/01/content_5418723.html)

그러나 생각처럼 경영이 순조롭지 못하여 폐업을 하는 등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고 가정을 비롯하여 모든 일을 돌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그는 사회에 많은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을 품어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평소 거의 매일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비관해 왔으며 권력이 있고 부자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막상 용기가 나지 않아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였으나 그 대신 그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에게 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힘이 약해 반항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아이에게 범죄를 실행하면 아이의 부모가 심리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들도 쉬씨와 같이 사회의 쓴맛과 좌절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기회를 엿보며 범행에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모 유치원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유치원의 경비원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고 낮에는 자주 문 잠그는 것을 잊어버려 손쉽게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실행 착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범죄실행에 필요한 도구인 칼을 구매하여 같은 해 4 월 29 일 오후 결국 쉬모씨는 칼을 들고 유치원에 난입하였고 아이들에게 무차별하게 칼을 휘둘러 32 명의 중상을 입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었다.<sup>35</sup>

그 밖에도 2010 년 3 월 푸젠성 모 초등학교 정문에서 범죄혐의자 정모씨가 무자비하게 초등학생에게 칼을 휘둘러 8 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5 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건, 2010 년 4 월 범죄혐의자 유모씨의 광시의 모 학교에서 칼을

---

<sup>35</sup> (中) 바이두(Baidu, 百度) 백과사전: “石家庄 ‘3·16’ 特大爆炸案(시자좡 폭발사건)2019. 11.18.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6%B1%9F%E8%8B%8F%E6%B3%B0%E5%85%B4%E4%B8%AD%E5%BF%83%E5%B9%BC%E5%84%BF%E5%9B%AD%E4%BA%8B%E4%BB%B6/12509026>

휘둘러 2 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5 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건, 2010 년 4 월 범죄혐의자 이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산동 웨이팡의 한 학교 돌진하여 쇠파이프를 휘둘러 5 명이 학생이 부상을 입히고 본인은 가스로 분신해 자살한 사건, 광둥썬장의 모학교에 난입해 19 명의 학생과 교사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사건 등이 대표적인 약자에 대한 증오범죄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 (5) 증오범죄의 문제 분석

상기된 중국형 증오범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증오범죄의 피해자로부터 공통된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피해자들은 특수한 집단의 속해 있고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각도에서 다른 범죄 분류를 하게 되면 증오범죄는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부자에 대한 증오(仇富犯罪), 관료(공무원)에 대한 증오(仇官), 의료인에 대한 증오(仇医犯罪),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증오(仇弱犯罪)가 있다.

첫째, 부자에 대한 증오범죄는 “행위자가 증오동기가 원인이 되어 폭력적인 수단 또는 비(非)폭력적인 수단을 사용, 부자 집단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주관적이며 실제로의 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범죄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집단을 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부자에 대한 증오범죄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범행의 수단도 매우 다양하다. 폭행, 협박은 물론이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납치하기도 한다. 범죄의 동기면에서도 오래전에 발생한 부자에 대한 살인사건은 대부분 금전적인 분쟁, 쌍방의 갈등 및 다툼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대부분 빈부격차 및 계층화에 따른 충돌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의 취약계층은 사회로부터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불만으로 모든 부자계층에 대해 증오심리가 생겨 부자계층에 대한 복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증오범죄의 행위자는 오랜 심리적 불균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이들이 선택한 범죄의 대상도 임의적이며 범죄의 수단도 다양성 및 잔인성을 보인다.

피해자의 각도에서 볼 때에도 증오범죄의 피해자는 증오범죄의 피해자와 범죄자는 평소 왕래도 없고 갈등도 없으며 심지어 일면식도 없다. 증오범죄인은 단지 부자계층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임의적으로 피해자를 선택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리를 표출하는 것이다.

둘째, 관료에 대한 증오범죄는 “증오동기가 원인이 되어 행위자가 폭력적인 수단 또는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 공무원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危害)를 가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관료의 의미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말하는 국가(지방직)공무원, 정부관계자, 법원 및 검찰 등 사법기관 공무원, 국영기업의 임원 등 모두를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 등 각종 매스컴에서 공무원에 대한 증오범죄 피해사례가 여러차례 보도된 후 국민들은 공무원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보이기 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심지어는 질타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은 국민들이 가지는 권력자에 대한 증오, 공무원에 대한 증오, 부패에 대한 증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오심리는 독특한 배경과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 수백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구시대적 관료문화와 관존민비(官尊民卑)사상이 공무원에 대한 증오범죄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의 공무원들은 구시대적 관료문화로 인해 아직도 예전의 잘못된 관행과 개인의 부도덕적 소양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높은 신분과 지위로 권세를 부리는 행위를 자행한다.

또한 동양의 사회 깊게 뿌리 깊은 관존민비(官尊民卑) 사상도 국민과 공무원간 괴리감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에 대해 적지 않은 적대감이 발생하며 증오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좋은 대우를 받고 국민의 공복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일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공무원이 업무를 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일처리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여 국민이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국민은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공무원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나아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업무처리가 투명하지 못하여 국민이 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국민은 결국 공무원에 대한 증오심리가 폭발하게 되어 공무원에 대한 증오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과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증오범죄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불의에 대항한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의료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행위자의 증오동기 원인이 되어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 의사·간호사·의료관련 기관·감정관련 기관 등 의료 종사자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범죄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종사자의 업무는 범죄행위자가 피해자가 실시하는 구체적인 업무행위에 대해

관련이 요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범죄행위자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기타 의료관련 업무를 수행 중일 지라도 범죄행위자의 증오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의료인에 대한 증오범죄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아직 한국, 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 비해 의료기술장비 등 의료인프라, 의료보험(의료보호) 등 사회제도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비록 정부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의료인의 기술력 부족, 첨단의료장비 등의 부재로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 의료인과 환자간 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고 환자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증오범죄행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사협회에서 2019 년 1 월 8 일에 발표한 "의료인과 환자관계 조사보고"에 의하면 중국내 지난 3 년간 의료인과 환자의 분쟁은 매년 평균 66 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환자의 손괴사건은 평균 5.42 건, 의료인 폭행(상해)사건은 평균 5 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의료인에 대한 증오범죄는 최근 중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최근 여러 차례 의료분쟁이 발생한 이후 중국의 인터넷 미디어 "인터넷 봉황"은 2012 년 3 월 28 일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료인 살인사건에 대해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는 6161 명으로 2012 년 3 월에 발생한 하얼빈 의과대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의사를 무차별하게 살인한 사건에 대해

조사자의 60%가 넘는 4018 명이 “기분이 후련하다(기쁘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의사에 비교적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sup>36</sup>

이러한 결과를 분석하면 의료종사자에 대한 냉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종사자의 구시대적인 의료서비스 마인드”와 “견제기능이 없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 많은 의료설비 투자를 하였으며 국민들도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믿어 의료비에 많은 지출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의료종사자 스스로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였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감시와 감독을 받지 않는 병원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서비스의 질은 여전히 개선이 힘들었고 환자의 피드백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환자의 마음속에는 늘 의료인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악화된 분쟁은 점점 합리적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커져 증오범죄가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넷째, 약자(弱者)에 대한 증오범죄는 “행위자가 증오동기가 원인이 되어 폭력적인 수단 또는 비(非)폭력적인 수단을 사용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弱者)란 노인, 어린이, 여성(임산부 포함), 장애인 등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범죄 피해에 저항할 능력이 없는 그룹이다.

---

<sup>36</sup> 中央电视台, “《新闻 1+1》杀医生: 我们可能也是‘凶手’ (의사 살인: 우리는 아마도 살인범일 수 있다)”, 2019. 10. 29. 검색

<http://tv.cntv.cn/video/C10586/3230b18193604c5590bca8850e0a5da1>

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으로 보이고 있다.

우선, 보통 성인 남성으로 평소 자신의 생활에 매우 불만족하며 비관적이다. 다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타인의 주목을 받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성격은 대체로 반사회적이며 개인에 따라서는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이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사회가 나서 도와주지 않는 것에 대해 사회 전반에 불만으로 분노하고 사회에 보복하려 한다.

그들이 범죄 대상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회의 약자 그룹이다. 사회적 약자를 범죄의 대상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저항할 힘이 없고 피해자가 울거나 애원해도 연민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범죄자의 일부 중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 약자에 대한 증오범죄는 쉽게 줄어 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증오범죄의 연구를 하면서 피해자의 각도에서 접근하여 증오범죄 문제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그룹의 특징 분석연구는 증오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상응하는 범죄예방 및 대책을 세우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 중국형 증오범죄의 주요특징

중국형 증오범죄는 개인의 증오가 원인이 된 개인적 증오범죄와 행위자들이 공통된 증오를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발생한 집단적 증오폭력사건이 있다. 대부분의 행위주체들은 주관적인 증오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증오동기가 행위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필자는 증오범죄의 종류 및 대표사례를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형 증오범죄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사례명	시간	장소	행위자	행위수단	피해정도
난핑 학교참사	'10. 3. 23	푸젠 핑난	정민성	흉기사용 (칼)	8명 사망, 5명 부상
타이주 유치원참사	'10. 4. 29	장쑤 타이조우	쉬위위엔	흉기사용 (칼)	32명 부상
난정 유치원참사	'10. 5. 12	산시성 난정	우환밍	흉기사용 (칼)	9명 사망 18명 부상
영주 법원총격사건	'10. 6. 1	후난성 영주	주췌	총기사용	3명 사망 3명 부상
창샤 버스방화사건	'10. 7. 21	후난성 창샤	쩐하이타오	방화	4명 사망 9명 부상
우조우 연쇄폭발사건	'10. 6. 1	장시 우조우	치엔밍치	폭파	2명 사망 4명 부상
차오안현 구상 사건	'11. 6. 6	광조우 차오안	쓰촨 민공회	손괴, 방화	차량 수대 전소
평칭 민중소란사건	'11. 6. 11	광둥 평칭	황예 등 19명	손괴, 방화	수명 부상 차량, ATM 기 전소
아커쑤 민족 증오선동 사건	'11. 11	신장 아커쑤	아이허타이무, 허리리	인터넷 동영상 유포	사회치안에 악영향

간쑤회닝 총격사건	'12. 2. 5	간수 회닝	차오지취엔	총기사용	4명 사망 7명 부상
하얼빈 의료인살인사건	'12. 3. 23	헤룽장 하얼빈	리명난	흉기사용 (칼)	1명 사망 3명 부상
완성 군중소요사태	'12. 4. 10	충칭 완성	완성구 민중	손괴, 방화	차량 수대 전소
형양 의료인살인사건	'12. 4. 28	후난 형양	왕원성	흉기사용 (칼)	1명 사망
윈난 차오자현 폭파사건	'12. 5. 10	윈난 차오자	송차오위, 쩡더용	폭파	3명 사망 16명 부상
BMW 남 살인사건	'12. 8. 10	헤룽장 하얼빈	조모	흉기사용	1명 사망
광시 핑난살인사건	'12. 9. 21	광시 핑난	우예창	흉기사용 (칼)	3명 사망 13명 부상
쭈하이 접대부살인사건	12.11.26	광둥 쭈하이	짱치제	흉기사용 (칼)	1명 사망
텐진 의료인 살인사건	12.11.29	텐진	왕잉성	흉기사용 (칼)	1명 사망
허베이 핑닝사건	12.12.25	허베이 핑닝	인테진	자동차	20여명 부상

쿠얼러 살인사건	'12. 3. 7	신장 쿠얼러	아이즈티아이 리, 마무티	흉기사용 (칼)	5명 사망 7명 부상
샤먼 시내버스 방화사건	'13. 6. 7	푸젠 샤먼	천수이종	방화	17명 사망 34명 부상
쇼우뚜 공항 폭파사건	'13. 7. 20	베이징	지쥑싱	폭파	인명피해 없음
저장 온링 의료인 살인사건	13. 10. 25	저장 온링	렌은칭	흉기사용 (칼)	1명 사망 2명 부상
타이위엔 연쇄폭파사건	'13. 11. 6	산시 타이위엔	핑지진	폭파	1명 사망 17명 부상
이빈 시내버스 방화사건	'14. 5. 12	후베이 이빈	위위에하이	방화	1명 사망 77명 부상
항조우 시내버스 방화사건	'14. 7. 5	저장 항조우	빠오라이쉬	방화	32명 부상
광조우 시내버스 방화사건	'14. 7. 15	광둥 광조우	오장성	방화	2명 사망 32명 부상
시옌 학생살인사건	'14. 9. 1	후베이 시옌	천옌푸	흉기사용(칼)	4명 사망 4명 부상
링산 학생살인사건	'14. 9. 26	광시 링산	시젠옌	흉기사용	4명사망

리우조우 시내버스 방화사건	'14. 11. 21	광시 리우조우	송옌리	방화	2명 사망 9명 부상
지아징룽 철거살인사건	'15. 2. 15	허베이 스자장	지아징룽	총격	1명 사망
류청 폭발사건	'15. 9. 30	광시 류청	웨이인용	폭파	10명 사망 51명 부상
로양 경찰습격사건	'15. 11. 4	허난 로양	정전지	흉기사용(칼)	2명 사망 2명 부상
인촨 시내버스방화사건	'16. 1. 5	닝샤 인촨	마용핑	방화	18명 사망 32명 부상
베이징 법관총격사건	'16. 2. 26	베이징	리다산	총기사용	2명 사망 1명 부상
하이코우 학생살인사건	'16. 2. 29	하이난 하이코우	리스진	흉기사용(칼)	10명 부상

표 5 < 2010 년이후 중국내 발생한 36 건의 증오범죄 사례 >

(1) 중국형 증오범죄의 분류

증오범죄는 일종의 범죄현상으로 각종 기준에 따라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형법”내의 죄명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가. 주체에 따른 분류

우선 범죄주체에 따른 분류로는 첫째, 자연인이 실시한 증오범죄와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실시한 증오범죄가 있으며 예를 들면 테러조직죄, 범죄단체조직죄가 있다. 둘째, 단독으로 실시한 증오범죄와 2 인 이상이 실시한 증오범죄, 집단이 실시한 증오범죄가 있다.

나. 다음으로 범죄객체 및 보호법익에 따른 분류이다.

**가. 국가안전의 위해를 주는 증오범죄:**

국가분열죄, 국가분열선동죄, 무장반란죄, 소요죄, 국가전복죄, 이적죄 등.

**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증오범죄:**

방화죄, 일수죄(溢水罪), 폭파죄, 음용수 등 혼독죄,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한 죄 등.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해하는 증오범죄:**

위조 및 저질품의 생산·판매죄, 횡령·배임죄, 탈세죄, 대출사기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죄, 강제교역죄 등

**라. 국민의 신체 및 민주권리를 해하는 증오범죄:**

살인죄, 상해죄, 강간죄, 부녀모욕죄, 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심문에서 자백강요죄, 불법증거수집죄, 민족증오선동죄, 민족차별죄, 보복죄 등.

**마. 국민의 재산을 해하는 증오범죄:**

강도죄, 절도죄, 사기죄, 약탈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공갈죄, 손괴죄, 고의임금체불 등.

**바. 사회질서를 해하는 증오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법률실시폭력항거선동죄, 단체국가기관공격죄, 단체공공질서혼란죄, 집단폭행죄, 증인보복죄, 성병전파죄 등.

**사. 국방의 이익을 위해하는 증오범죄:**

군인직무방해죄, 군사행동방해죄, 불합격무기장비 및 군사시설고의제공죄, 군사금지구역 집단공격죄 등.

**아. 뇌물죄에 관한 증오범죄:**

공금횡령죄, 뇌물수수 및 제공죄, 국가기밀누설죄 등

**자. 군인의 직무위반에 관한 증오범죄:**

전시항명죄, 허위보고죄, 군사직무방해죄, 부하학대죄, 포로학대죄 등.

**차. 국가안전의 위해를 주는 증오범죄:**

국가분열죄, 국가분열선동죄, 무장반란죄, 소요죄, 국가전복죄, 이적죄 등.

**카.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증오범죄:**

방화죄, 일수죄(溢水罪), 폭파죄, 음용수 등 혼독죄,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한 죄 등.

**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질서를 해하는 증오범죄:**

위조 및 저질품의 생산·판매죄, 횡령·배임죄, 탈세죄, 대출사기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죄, 강제교역죄 등

**파. 국민의 신체 및 민주권리를 해하는 증오범죄:**

살인죄, 상해죄, 강간죄, 부녀모욕죄, 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형사심문에서 자백강요죄, 불법증거수집죄, 민족증오선동죄, 민족차별죄, 보복죄 등.

**하. 국가안전의 위해를 주는 증오범죄:**

국가분열죄, 국가분열선동죄, 무장반란죄, 소요죄, 국가전복죄, 이적죄 등.

표 6 < 중국 형법中 증오범죄와 관련된 법조항 >

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로서 폭력방식과 비폭력방식의 증오범죄로 분류할 수 있다.

(2) 증오범죄의 유형별 특징

## 가. 개인적 증오범죄와 집단적 증오범죄

개인적 증오범죄라 함은 행위자가 본인의 개인적인 증오 동기로 인해 타인 또는 사회에 대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이런 범죄는 보통 행위자의 개인적인 좌절과 사회에서 받은 불공평으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가 침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행위자는 폭행, 상해, 손괴, 살인 등 사회에 파장력이 큰 범죄를 행하여 본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증오범죄는 다시 행위의 객체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 행위의 객체가 특정된 증오범죄와 불특정된 사회보복범죄(묻지마 범죄)로 구분된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내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증오범죄 사건 중 개인적 증오범죄가 총 32건으로 전체 사건의 88.8%를 차지하는데 이는 최근 발생한 중국형 증오범죄의 주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집단적 증오범죄는 공통된 신념, 혹은 공통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집단을 이루어 범죄 대상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 따라서 집단적 증오 범죄는 일정 수 이상(중국에서는 실무적으로 5인 이상을 집단으로 간주)의 행위자가 증오의 동기로 함께 참여하여 타인, 국가기관, 특정 집단 또는 사회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표 사례로 광둥 차오안(广东潮安), 광둥 구시양(广东古巷), 광둥 쩡청(广东增城), 충칭 완성(重庆万盛) 등의 사건이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집단적 폭력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차별, 편견범죄

증오범죄는 오해와 질투, 원한, 격분 등 다양한 원한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차별·편견은 증오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중국형 증오범죄는 주로 다른 집단이나 소수민족에 대해 편견·혐오·차별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즉,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증오범죄사건은 차별 및 편견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36 건의 대표 사례에서도 차별과 편견에 의해 발생한 범죄가 총 34 건을 차지한다.

사례에 포함된 차별·편견형 증오 범죄는 각각 '신장 아커쑤(新疆阿克苏)민족의 증오선동사건'과 '주하이 매춘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민족적, 종교적 편견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후자는 행위자가 평소 매음녀에 대한 원한을 바탕으로 실시한 고의 살인행위이다. 중국내에서 차별적 편견형 증오 범죄는 미국의 증오 범죄와 유사하지만 중국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 (3) 범죄주체의 특징

중국의 소수민족, 서부지역, 농촌 등 낙후지역에 거주중인 소외계층은 증오범죄 주체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이 계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하위계층으로 추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소외계층은 정치 경제 등 사회로의 진출가능성이 적고 권리 실현 능력이 부족한 계층으로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며 생활면에서 빈곤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표 5>에 열거된 36 건의 증오범죄 사례 중 28 건의 행위 주체는 무고정직 근로자이며, 이들은 대부분 농민, 농민공(农民工), 무직자, 영세 자영업자이다. 이

사례를 볼 때 범죄자들은 증오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많은 좌절을 겪었거나, 오랜 병을 앓았고 혹은 직장에서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다.

예를 들면 샤먼 시내버스 방화사건(厦门公交车纵火案)을 보면 범인인 천수이중(陈水总)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오랜 무직 상태였고 게다가 부양가족이 많아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었다. 결국 그는 생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시내버스를 겨냥하여 방화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시링산 학생살인사건(广西灵山砍杀学生案)에서도 범인인 시지엔엔(石健延)은 평소 빈곤으로 인한 사회불만이 많았으며 이러한 불만은 증오로 이어졌고 결국 무고한 학생들을 부차별적으로 살해하였다.

또한 '수도 공항 폭파사건' 및 '푸조우 연쇄폭파사건' 사례도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왜곡된 심리 속에서 결국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 (4) 범죄객체의 특징

중국형 증오범죄의 사례를 통해 증오범죄의 객체를 분석해 보면 주로 다음과 같이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상이 특정이 안된 일반 대중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 특정된 집단이다.

불특정 일반인을 범죄대상으로 한 사건은 총 19 건으로 사건총수의 약 52%이며 법관·경찰·의사 등 특정된 직업군에 대한 증오사건은 총 9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였다. 특히 학생들을 직접 겨냥하여 실시한 범죄는 7건으로서 사건 총수의 약 19%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범죄자는 증오범죄의 대상을 주로 불특정 일반인, 법관·경찰·의료인 등 특수직업군, 무고한 초등학생 등과 같이 반항할 능력이 없는 집단도 주요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표본사건에서 반영된 증오 범죄대상의 특징을 볼 때 증오범죄의 객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증오범죄의 대상 범주는 일반적 특징이 뚜렷하다.

대부분의 범죄의 객체들은 일반인과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이며, 그들은 무고한 유형의 피해자이다.

특정 사건에 기초하여 어떤 집단을 원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부자에 대한 증오(仇富)", "관료(공무원)에 대한 증오(仇官)", "경찰에 대한 증오(仇警)"가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자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불특정 대상자의 인명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를 원하며 사회적 공황을 조성한다.

둘째, 가해자는 보통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수단 등 대중이 밀집된 공공장소를 선택한다. 그래서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의 공격에 방어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범죄의 피해가 매우 크다.

행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반드시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범죄의 장소를 선택하게 되는데 반항할 힘이 부족한 학생이나 노인 여자 등 약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역 등 공공장소를 택한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 거리의 행인 등은 보통 범죄 발생의 대비가 없거나 밀집된 공간에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때 피하지 못하여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5) 범죄동기의 특징

증오범죄의 주관적 동기는 주로 적대적인 감정, 원한, 편견, 질투 등의 감정에서 비롯된다.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동기의 중요한 변수이며, 동기의 발생과 발전은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감정은 범죄발생의 중요하고 핵심적 역할의 하나로 작용한다. ... (중략) 감정의 발전은 동기부여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일종의 본인의 적응 수단으로써 감정의 변화가 발생시 자기의 감정해소를 위해 여러가지 행동을 취하게 된다."<sup>37</sup>

이와 같이 증오범죄는 행위자의 증오심리의 표출구이다. 증오범죄자들은 일단 증오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또한 증오범죄자는 개인의 좌절 극복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증오의 감정이 증폭되고 결국은 증오범죄의 동기가 형성되면서 증오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의 성격은 더욱 포악하게 변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수도공항 폭발사건(首都机场爆炸案)'에서와 같이 행위자 지중성(冀中星)은 2005년 동관(东莞)에서 치안원에게 구타를 당해 평생 장애를 입고 그 후 법원의 최종심에서도 패소한 후 소송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또한 푸젠난핑 학교참사사건과 '난정 유치원참사'에 대한 증오의 동기는 주로 개인의 편집증 적이고 편협한 인격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푸젠 난핑학교참사' 사건의 정민성(郑民生)은 실직 후 여자친구가 결혼하지 않아 사회보복 심리로

---

<sup>37</sup> (中) 乔建中: “情绪与动机-情绪心理学家的动机理论(정서와 동기-심리학자의 동기이론)”, 《南京师大学报》, 1993年3期.

학교에서 무차별적 살인을 하였고 난정유치원 참사의 범인 우환밍(吳煥明)은 본인의 불치병의 원인을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내 유치원을 운영하는 오홍영이 건물내에 있는 뱀을 죽여 '천지신명'을 건드렸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져 그 원한을 오홍영에게 전가하여 유치원의 무고한 어린이들을 살해하였다.

상기의 예는 모두 개인의 억눌려 왔던 여러 감정이 순간적인 폭발로 인해 결국 범죄의 형태로 표출이 되었던 것이다.

## (6) 행위방식의 특징

범죄행위방식이라 함은 주로 범죄행위를 실시하는 수단과 형식을 말한다.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행위방식은 주로 전통적인 무기인 칼, 도끼 등 흉기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지능범죄는 전체의 비중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에는 집단적으로 행하는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형 증오범죄 행위방식의 특징으로는 첫째, 범죄의 행위방식은 주로 전통적 폭력범죄 위주이다.

<표 5>의 사례 36 건 중 34 건은 전통적인 폭력적 수단으로 실시됐고 이 중 칼, 도끼 등 흉기의 이용 14건, 둔기 등 사용 3건, 방화 7건, 폭파 5건, 총기 4건, 자동차 이용 1건 등이다.

*범죄학자의 말의 인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요사태 등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의 행위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주된 이유는 행위주체의 대다수가 하위 계층으로 그들은 신형 범죄 도구의 조건을 획득하거나 최신의 범죄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에게는 평소에 사용하는 전통적인 폭력수단이 익숙하고 상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폭력수단을 이용하여 사회와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을 표출하고 사회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이다.<sup>38</sup> 라고 전통적인 폭력범죄가 많은 이유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형 증오범죄에는 전통적인 행위방식 이외에 인터넷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방식은 중국에서 발생한 증오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다. 현재 중국에서 새로운 수단을 사용한 증오범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모욕 등 인터넷을 이용한 민족 증오선동, 민족차별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5>의 36건의 사례에서는 단1건만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행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증오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근의 사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화되면서 전통적인 범죄행위가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된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

네티즌들은 사이버공간의 초공간성과 가상성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서로 자신들의 분노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무리를 형성해 불공평한 사회 등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여 집단적 증오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일탈행위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위법행위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고 가상공간에서의 분노감정은 선동, 선전되어 대중으로 전파되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심리적인 요인이 되었다.”<sup>39</sup>

---

<sup>38</sup> (中)莫洪宪：“我国报复社会型犯罪及其预防(사회보복범죄와 예방)”，《山东大学学报》，2015年2期.

<sup>39</sup> (中)马皓：“对弱势群体犯罪现象的观察与思考”(약자그룹에 대한 범죄현상의 관찰과 사고)，《中国法学》，2003年4期.

최근 발생한 광둥차오안 (广东潮安)의 '구상사건 (古巷事件)' 과 충칭(重慶)의 완성사건(万盛事件)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5. 중국형 증오범죄의 원인

1978 년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다.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이래 20 여년간의 사회주의 체재를 고수해온 중국은 사회주의식 자본주의로의 급박한 변화속에 단기간내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 속 일부의 사람들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이루게 되었고 대다수의 인민들은 변화에 적응을 못하여 결국 빈부의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혁개방이라는 큰 사회적 변화는 중국사회내에서 많은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점점 인민들은 증오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형 증오범죄 발생원인의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중국의 대표 사례를 바탕으로 증오범죄의 주요발생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 (1) 사회구조(메커니즘)의 불균형으로 인한 증오심리의 발생

증오범죄의 발생은 사회구조의 변천에 따른 사회구조의 불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회구조의 불균형한 발전은 증오범죄 형성의 외적인 메커니즘이며 사회속에서 개인의 갖는 증오감정의 감정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사회학에서의 사회구조이론은 증오범죄의 원인 해석에 효과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사회학자 머튼의 아노미 이론(Merton, Anomie Theory)은 범죄의 발생 원인을 사회구조에 입각해 분석하고 있다.

머튼 (Merton) 교수는 "어떤 사회의 문화 든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규범·제도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공의 목표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계층과 지위를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

하층 계급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것과 경제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 조건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이것은 좌절감, 분노와 같은 긴장을 갖게 하고, 전통적인 목표와 제도적 수단 사이에서 일종의 미스매치를 일으키게 된다."<sup>40</sup>

머튼의 이론은 중국 현시대의 증오 범죄의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36 건의 표본 사례를 보면 범죄 주체가 사회적 약자에 속하며 하층민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 경우가 전체의 82%에 달했다. 사회적 약자의 합법적인 가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제도적인 부재가 사회적 약자는 사회구조의 변천 속에서 끊임없이 소외되고 사회 하층민을 전전하게 된다. 증오의 감정은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전통적 가치의 목표와 제도의 부재의 불균형으로 인해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현재 사회구조적 불균형 발전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는 사회구조의 계층적 분화가 날로 심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계층)의 유동성의 약화되어 계층의 고정화 촉진시킨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앞의 두 가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형성된 사회 계층단절 현상이다. 사회구조 불균형은 사회 저변층의 자기 가치 목표 달성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증오발생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사회 전환기시절의 사회배분제도의 공평하지 못하였고, 도농이원(都农二元) 체제 등 제도적 결함에 따른 노동자 계층의 소득저하, 부의 집중,

---

<sup>40</sup> (中) 吴宗宪: “西方犯罪学(서양의 범죄학)”, 《法律出版社》, 2006 年, p. 342-343.

도농격차 확대 등이 사회구조의 계층적 분화를 부추겼고 증오감정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범죄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 계층의 분화가 범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하위 계층이 차지하는 부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성공의 기회도 적어져 계층간 갈등 및 충돌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위 계층의 생활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극한에 도달하였을 때는 내적 갈등은 이미 인내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나아가 "예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의 내적 갈등으로 긴장과 초조, 막연한 마음 상태를 야기시키는 것"<sup>41</sup> 이라고 하였다.

이런 불안정한 정서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하위 계층민은 생활이 매우 힘들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으로 절망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은 극단적인 형태로 사회에 대한 공격, 보복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둘째, 중국사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계층간 이동이 매우 힘들어 계층의 고착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리창 교수는 부(富)가 계속 대물림 되거나 가난한 가정이 늘 대대로 가난하다면 폐쇄적 체제, 즉, 계층의 고착화라고 하였다.<sup>42</sup>

중국사회는 사회계층간 많은 제한이 있고 계층 간의 생활방식과 문화가 점차 형성되면서 고위직의 대물림(官二代), 부의 대물림(富二代), 연예인 대물림(星二代)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될 정도로 사회의 불평등이 만연하다.

---

<sup>41</sup> (中)马皑: “对弱势群体犯罪现象的观察与思考”(약자그룹에 대한 범죄현상의 관찰과 사고), 《中国法学》, 2003年4期.

<sup>42</sup> (中)张旭、刘健: “个人情绪型仇富心理与犯罪(개인의 감정형 부자 증오심리와 범죄)”, 《山东警察学院学报》, 2015年5期.

이러한 사회문제는 사실상 계층의 고착화 상징이다. 대물림은 어느 한 계층에 의해 발전의 기회를 독점하게 되고 기타 계층은 공평하게 경쟁을 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위 계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층간 분화의 상황에서 고위층은 고위층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하위계층도 하위계층만의 문화를 형성되었다. 이러한 계층 간의 문화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자극하였고 계층 간 갈등으로 심화되어 결국 충돌을 유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중국 현 사회에서 발생한 부자 증오범죄는 바로 계층 고착화에 의한 개인의 심리가 극도로 불균형 상태의 상황에서 반사회적 인격이 형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창사공항버스 방화사건"의 사례와 같이 범인인 하이타오(湛海涛)는 범행 전 사업에 실패하고 친구들과 함께 사업실패의 손해를 만회하고자 도시를 떠돌아다니며 사업 재기를 시도하였는데 몇 년 후에도 결국 사업에서 적자를 보게 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많이 궁핍 해졌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염세적 생각과 사회 적대심을 가지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안은 계층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던 중 사회의 구조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내면에 적개심을 자극하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구조의 계층적 단절도 증오의 자극 요인이다.

계층이 고착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인 불균형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개체들이 증오감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다. 대부분은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긍정적이고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사회내 개체들이 하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돼 다른 사회 계층과의 격차가 심해지게 된다.

이로 인해 하위계층 내부에서 상위계층에 저항을 하는 하위문화가 형성되고 자칫 하위계층에게 증오심과 반사회적 성격의 표출을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구조가 계층화된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계층화된 사회구조에서 하부구조 개체의 구성원들은 사회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매우 적고 기존의 안정된 계층구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 노력해도 끝내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sup>43</sup>

이렇게 사회구조의 정상적 위치에서 벗어나 구조 밖의 새로운 집단의 일원이 되어 원래의 사회구조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고 자신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로의 변천은 하부구조를 경직시키고 사회구조내 개체들의 분열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천수이종(陈水总)과 지중싱(冀中星)의 사례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회보복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자들은 평소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들은 개인의 추구해야할 최소 한의 정당한 권리도 오랜 시간동안 무시되는 등 사회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서서히 주류 밖을 떠도는 사회 개체가 되었고 평소 강한 사회적 박탈감을 바탕으로 증오심리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증오심은 바로 개체들이 기존의 체제, 제도, 정책 등과 같은 개인의 능력으로 전혀 바꿀 수 없는 것 들이었고 어쩔 수 없이 그들 만의 증오범죄 실행에 대한 정당성 및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회 분풀이성 집단행동이나 이유 없는 보복으로 증오와 분노를 사회와 타인에게 전가하였다.

## (2) 증오동기의 초기형태인 하위계층의 이상심리

---

<sup>43</sup> (中)张旭、刘健：위의 글.

"사회심리(Social Psychology) 상태는 사람들의 이익 욕구를 반영하고 사회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심리상태로 사회 전반의 정서적 기초,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가치관을 총합한 것이다."<sup>44</sup>

이처럼 사회심리는 사회적 합의, 가치지향과 행위선택에 깊게 영향을 미쳐 사회개체와 사회 전반에 일종의 상관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하위계층은 이미 사회 전반에 가치 정체성 즉, 하위계층의 심리를 형성하고 있다.

하위계층의 사회심리 형성은 하층민의 문화를 핵심으로 한다. "하위계층은 사회에서 강요하는 가치 규범의 범위내에서 성공할 수 없고 좌절과 실망이 예상되는 결과에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뿐 만 아니라 일부의 하층민도 역시 어찌할 도리가 없이 자신의 생활을 받아들이고 체념하여 살려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sup>45</sup>

이처럼 장기빈곤으로 인한 비관정서와 억압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자아의 심리조절의 불균형이 초래하게 되면 이 중 일부는 극단적인 사회보복 정서를 발생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극심한 자기 실망을 범죄라는 수단으로 표출할 것이다. 이러한 이상심리는 증오 범죄 동기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원한의 발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의 구조적 요인인 불균형한 발전은 증오 범죄가 만들어 내는 외적인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회구조성 원한은 급변하고 있는 사회의 전환기에 정책, 제도, 규범 등 사회 시스템의 오작동, 부재 등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팽배한 심리상태라

---

<sup>44</sup> (中)杨宜音：“个体与宏观社会的心理关系：社会心态概念的界定(개체와 거시사회의 심리관계：사회심리개념의 정의)”，《社会学研究》，2006年4期.

<sup>45</sup> (中)周怡：“贫困研究：结构解释与文化解释的对垒(빈곤연구：구조해석과 문화해석의 대치)”，《社会学研究》，2002年3期.

할 수 있다.”<sup>46</sup> 사회구조성 원한은 외부환경을 인지과정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사회를 바꿀 수 없다고 느끼거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원한이 쌓이고 원한이 쌓여 임계치를 넘을 때 개체나 집단을 통해 표출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중국사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증오(仇官)와 부자에 대한 증오(仇富) 현상이 팽배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원한을 방출하고 표출하는 수단이 된다. “사회구조적 원한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은 개인의 극단적 반(反)사회적 행위라 할 수 있겠다.”<sup>47</sup> 사회 전환기에서 제도와 규칙을 신뢰할 수 없고 교육의 불균형, 비싼 의료비, 치솟는 집값, 취업난 등 많은 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공무원(국가)에 대한 불만 즉, 증오의 마음이 형성되어 결국 국민들의 참을 수 없는 정서가 분출되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범죄 주체의 죄책감이 약하다. 증오범죄의 행위주체는 죄의식(죄책감)이 약한 경향이 있다.

죄책감은 범죄인의 위법행위 또는 범죄의 인지(고의)에 대한 일종의 자기평가와 반성이며 죄책감의 강약은 개인의 품성, 도덕적 수양, 사회문화 및 사회규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증오범죄자들은 일반적으로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외부의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고 자기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즉, 사회가 부당하게 행위자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법적책임을 국가에게 전가해 국가의 형벌을 면하려 시도하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합리화를 시도한다.

---

<sup>46</sup> (中)朱力、朱志玲：“转型期的社会结构性怨恨：概念、形态和特征(전환기의 사회구조성 원한: 개념, 형태와 개념)”，《中国图书评论》，2015年4期。

<sup>47</sup> (中)朱力、朱志玲：위의 글。

이러한 심리적 상태에 있는 행위자는 보통 범죄결과에 냉정하고 행위의 결과에 대해 고려하지 않아 사회 공공의 안전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말해 중국형 증오범죄는 행위방식의 폭력성과 범죄 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범죄 주체의 죄의식 약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증오범죄자 죄의식의 약화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원인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외적 요인은 기회의 불공평, 큰 빈부격차, 사회참여의 배제 등의 행위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으로부터 기인(起因)하는 것이다. 하위계층민은 외적인 요인들로 인한 심한 좌절감으로 부정적인 정서가 비교적 만연해 있다. 그 들은 사회에 보복하는 방법이 자기를 구제하는 손쉬운 방식이며 자신에 대한 유일한 심리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내적인 요인으로는 일부의 극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증오범죄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냉혹하고, 잔인하고, 편집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냉담하고 비정서적인 정신병질적인 정서특질” (CU 특질, callous-unemotional traits)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CU 특질이란 타인에 대한 냉혹하고 죄책감과 동정심이 결여된 일종의 인격성향이다”<sup>48</sup> 무관심과 편집증적 인격성향으로 동정심 등 타인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 부족하며 죄책감이 부족하고 냉혹하여 범죄의 과정 및 수단이 매우 잔인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저장 온링시 의료인살인사건”에서 행위자 연은칭(连恩青)은 온링시 제 1 인민병원에서 오진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의료전문가와 의학회의 감정을 거친 후에 온링시 제 1 인민병원이 의료사고의 과실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내려져 행위자 연은칭은 이의제기 처리과정 및

---

<sup>48</sup> (中)肖玉琴、张卓、宋平等：“冷酷无情特质：一种易于暴力犯罪的人格倾向(잔혹하고 무정한 특성: 일종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인격경향)”，《心理科学进展》，2014年9期.

의료감정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의료인을 무차별하게 살인하였다. 또한 재판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후난형양 의료인 살인사건”(湖南衡阳杀医案)의 범인 왕원성 (王运生) 또한 의사에게 28 차례 칼을 찔렀지만 재판에서 한 치의 후회도 없었으며 살인의 결과에도 매우 냉담한 성격을 보였다.

셋째, 사회의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이다.

“집단극화란 집단일 때 더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향성을 말한다.”<sup>49</sup> 집단적 증오범죄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행위자의 심리적으로 ‘숨겨진 증오심리’가 존재하며 행위 주체는 범죄 과정에서 집단극화의 특징을 보인다.

“집단극화는 집단내 구성원 개인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집단내부의 상호작용, 교류, 공진을 통해 결국에는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한다.”<sup>50</sup> 는 것이다. 집단극화는 사회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의 감정이 누적되고 자극과 폭발의 과정이며 “그 형성 메커니즘은 주로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 특정한 사회적 상황은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와 원한 감정의 생성, 인파의 집중과 대립, 감정의 전염과 대립”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sup>51</sup>

집단적 증오범죄에서 집단의 정서는 주로 같은 처지에 있는 개체들이 서로 자극이 되고 공감하면서 싹이 트기 시작하여 잔인한 공격성과 비이성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집단적 증오 범죄에서 범죄 개체의 익명적 특성 때문에

---

<sup>49</sup> 네이버 두산백과: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 集團 劇化)” 2019. 11 .18.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434549&cid=40942&categoryId=31531>

<sup>50</sup> (美)凯斯·桑托斯: “网络共和国: 网络社会中的民主问题(인터넷 공화국: 인터넷사회에서 민주주의 문제”, 黄维明译, 上海人民出版社, 2003 年, p. 47.

<sup>51</sup> (中)张广利、孙静: “群体极化的特征、根源及过程机制分析(집단극화의 특징, 유래 그리고 과정 분석)”, 《华东理工大学学报》, 2013 年 1 期.

집단의 일원으로서 더 이상 '개체'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집단 행위로 간주하기가 쉬워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기 쉽고 평소에 하기 힘든 일도 군중심리로 인해 가능하게 된다.

“광둥 차오안구(區) 구상 사건”을 예로 들면 구상진(鎭 중국의 행정구역)의 한 쓰촨(四川) 출신의 한 농민공이 임금을 요구하다가 악의적으로 폭행을 당한 후 현지 파출소의 법 집행에 불만을 품었다. 사건 초기에는 구상진 행정기관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제때에 당사자의 요구를 청취, 해결하려 하지 않아 갈등과 충돌이 증폭되었고 결국 200여명의 농민공(农民工: 시골에서 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한 사람으로 보통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대다수이다)은 구상진 정부를 포위하고 도로를 막아 길가는 무고한 행인을 폭행하고 차량을 부시고 불태우는 등 사회질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건을 감행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비방, 해킹공격 등 사이버 증오범죄의 경우에서도 서로 다른 객체들이 증오감정의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결집하여 인터넷 증오범죄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3) 복수의 문화에서 비롯된 중국형 증오범죄

동양의 전통적인 복수문화는 현재의 증오범죄에 있어 중요한 촉진작용을 한다. 범죄 개체가 사회적에서 심한 좌절을 겪고 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범죄자의 마음 속 깊게 뿌리를 둔 복수심은 증오 범죄를 촉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기 쉽다.

“인류 역사에서 복수 현상은 모든 사회에서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복수는 기원(起源)부터 발전, 법제화까지 각 국의 법률사에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작품까지도 다양하고

끊임없이 구현되기도 한다.”<sup>52</sup> 전통적인 복수문화는 인성(人性)을 기초로 하며 복잡한 사회적 뿌리를 두고 있다. 복수문화의 인성적인 요인은 복수가 서로 다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오랜 기간동안 엄격한 법률과 형벌로도 근절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다.

반면, 복수문화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복수행위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으로 나타난다. 현대의 사법제도는 국민이 사회제도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집단의 복수 욕구를 채워주는 일종의 복수의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동양에서의 유교사상도 전통적인 복수문화 형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유교의 종법제도는 지배계층이 '효(孝)'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으며 부모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한 문화는 사회적(형벌)으로 매우 관대하고 심지어는 사회 정의구현으로 수단으로 장려되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의협심을 기초로 한 복수문화는 법의 관념이 부족한 당시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반(反)법치 악습의 하나이다.”<sup>53</sup> 이러한 복수문화는 동양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비록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인 복수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수문화의 연속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개인적인 복수문화라는 이유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정당화를 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비록 개인의 준법의식이 강해지고 있지만 중국 속담에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은 악(惡)을 무서워한다”, “성인군자(聖人君子)의 복수는 10 년도 길지 않다.” 라는 말이 있듯이 중국에서는 범죄행위자 본인의 권리침해를 정당한 방법으로 구제받지 못 할 때 자칫 삐뚤어진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sup>52</sup> (中)苏力: “复仇与法律—以〈赵氏孤儿〉为例 (보복과 법률- 조씨 고아의 예를 중심으로)”, 《法学研究》, 2005 年 1 期.

<sup>53</sup> (中)王文华: “‘法外复仇’传统与“仇恨犯罪”的抗制——以中国传统复仇文化与视角 (법의 복수의 전통과 중오범죄의 항제— 중국 전통 복수문화와 시각을 중심으로)”, 《法学论坛》, 2011 年 6 期.

동양의 증오범죄의 경우 범죄주체의 범죄행위가 전통적인 복수문화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때 중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간쑤 회령 총격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범인 조길전은 현대판 모친을 위한 복수극을 감행하였다. 그가 일곱 살 때 그의 모친은 동네에 사는 이모씨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조씨의 모친은 자살하기 전날밤 아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이웃마을의 이씨에게 핍박을 받았고 모친은 아들이 자라서 자신의 복수를 당부하였다. 그 후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조씨는 어린 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도 다녔다. 그러나 어머니 유언과 같은 당부는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고 조씨는 이씨 일가에 대한 증오는 오히려 크게 커지게 되었다.

결국 2012년 2월 5일 조씨는 총기를 소지하고 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원수 "이씨 집안"에게 복수를 하여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길전에게 어릴 때부터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어머니에 대한 복수였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국내 유명 기업에 취업한 것도 돈을 벌어서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현대에는 사례와 같은 전통적인 복수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가문의 복수'를 위한다는 복수사상은 인간의 마음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다. 즉, 범죄행위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로를 통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복수 감정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결국 잔인한 복수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 (4) 증오범죄를 유발하게 만드는 강압적인 통치

중국의 일부학자들은 “중국은 사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는 강한 권력으로써 사상, 조직결성을 제한하고 사회에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시위, 행진, 파업 등)를 통제해야 한다. (刚性稳定) 이러한 강력한 국가의 통제로 인해 사회가 안정을 찾고 있으며 (压力稳定) 강한 공권력은 사회유지의 필수요소이다.”<sup>54</sup> 라고 주장한다.

증오범죄 해결방식을 “치안의 유지”라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법기관과 정부기관에 의지하는 방식은 “강한공권력 집행 모델”이다. 이러한 통치모델은 증오범죄의 사후해결 및 임시방편에 불과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기본권을 간과할 소지가 있다.<sup>55</sup> 이러한 강한 공권력 집행 모델은 증오범죄의 해결과정 중 예방이라는 기본을 간과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력의 집행자는 사회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어렵게 만들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 증오감정의 장기간 누적으로 자칫 사회 하위계층민, 정부, 기타 계층 간의 충돌로 나아가 하위계층의 항거를 유발하여 증오범죄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중국형 증오범죄의 최근동향을 보면 사회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친 증오범죄는 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추세가 강한 공권력 집행방식이 역효과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첫째,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은 사건이 발생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억압적인 법의 집행은 증오범죄의 예방수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자칫 증오범죄심리를 크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에서

---

<sup>54</sup> (中) 于建嵘: “当前压力维稳的困境与出路—再论中国社会的刚性稳定(강력한 국가 통제 사회 안정의 어려움과 해결법- 중국사회의 억압적인 법집행을 중심으로)”, 《探索与争鸣》, 2012 年 9 期.

<sup>55</sup> (中) 高玥、单勇: “从压力控制到社会支持: 仇恨犯罪的治理转型(억압통제에서 사회지지까지: 증오범죄의 통치 전환)”, 《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4 年 5 期.

증오심리는 사회적 갈등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발생하고 시간이 흐르며 견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사회적 안정은 모든 방법 중에 제일이다.'라는 방법을 고수하여 왔고 '사회질서유지'라는 이유로 걸핏하면 무리한 공권력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집행방법은 사건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강한 공권력이 절대적인 해결 방식이라는 단순한 사고는 결국 사회구성원내 물리적 충돌 및 사회구성원의 갈등만 키웠다.

이처럼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해결 대책은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해결된 듯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형사소추와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결코 일반시민이 바라는 증오범죄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할 것이며 오히려 증오심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이다.

"장시성(省) 우시의 연쇄 폭파사건"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강압적인 법집행으로 인해 증오심리가 커진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하여 상급기관의 철거민 보상기준을 일방적으로 낮추었고 철거민 첸밍치 등 철거민 8 가구는 보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단체로 8 년간 관련정부기관에 항의방문을 하였다. 그러나 관련 정부기관은 시종일관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채 오히려 항의방문한 사람들을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여 강압적으로 해산시켰다. 결국 첸밍치 등 철거민은 정부와 사회의 부조리함에 악의를 품고 여러 차례 폭파 감행하였고 무고한 시민 4 명이 사망하고 9 명이 부상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아 정부의 장기적인 억압적인 법집행(정책)은 하위계층민에게 권리추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들은 장기적으로 소외를 받게 하였다. 이처럼 일반인이 정부에 대한 권리추구수단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부재로 인해 정부와의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둘째, 강압적인 법집행은 정부권력의 남용을 초래하게 되며 정부와 하층민간의 충돌이 증가하게 된다.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증오범죄의 해결방식은 정부기관 만이 주가 되고 있다. 즉, 정치법률위원회,公安기관과 지방 정부만이 서로 협조하는 체계이고 사회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공권력의 집행방식은 공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권력남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부족하여 정부와 하위계층 간의 충돌을 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민원인의 방문을 원천 차단하고 구금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민원인이 정상적 권리 추구하는데 많은 방해로 받고 있다. 이런 억압적인 법집행은 결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충돌을 증폭시켜 민원인들이 더욱 극단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2005 년 광둥 동관 행위자 지종싱은 치안원(보조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의해 평생 장애를 입었다. 그러나 국가의 법집행의 위법적인 행위가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公安기관이 여러차례 고의로 사건을 회피하여 입건을 거부하였고 관계부처에 계속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강제로 방문이 제지당하고 또한 사법기관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그는 결국 2013 년 7 월 20 일 수도공항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극단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셋째, 강압적인 법집행 방법은 사회갈등해결에 있어 법집행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중국의 강압적인 통제 정책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절대적 안전을 위해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갈등 즉, 항의나 민원제기 행위는 사회불안 요소로 간주해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있다. 갈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과 항의 명분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채 민원인의 원성이 높아지고 필연적으로 사회적 긴장이 높아져 결국 증오범죄를 촉진하게 된다.

한편, 다른 하나로는 사건의 처리에 지나친 무사안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상부의 질책과 민중의 항의사건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하여 관내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을 은폐하고 조속히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관련자에게 제때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사안일인 행정은 결코 대중의 권리보호에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처리 방식의 '양극화' 성향에서 전자는 강압적인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한 증오심리가 발생하여 증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후자는 공무원의 '무사안일 법집행'이 범법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심리를 키울 수 있다. 양극화된 처리 패턴은 증오범죄의 해결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6. 증오범죄의 대책

### (1) 중국의 증오범죄 대책

#### 가. 형법을 통한 해결

중국은 증오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에 소극적으로 일관하여 왔다. 결과 미국의 '증오범죄 가중처벌법'과 '증오범죄통계법' 등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증오범죄발생의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 형법에 따르면 '제 249 조 민족 증오 선동죄와 민족차별죄', '제 251 조 종교신앙의 자유침해죄, 소수민족에 대한 풍속침해죄' 등 증오범죄와 관련된 개별 법조문만 존재하고 있다.

◦ **형법 제 249 조(민족증오선동죄, 민족차별죄)**

민족 증오를 선동하거나, 민족차별이 사안이 중하면 3 년이하의 징역, 구류 (15 일이상 6 개월이하), 정치권리 박탈 또는 제한에 처한다. 사안이 매우 중하면 3 년이상 10 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 251 조(종교신앙의 자유침해죄, 소수민족에 대한 풍속침해죄)**

국가기관의 법집행 중, 위법하게 국민의 종교신앙의 자유 및 소수민족의 풍습을 침해한 자는 사안이 중하면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15 일이상 6 개월이하)에 처한다.

표 7 < 형법 제 249 조, 형법 제 251 조 >

#### 나. 보안처분을 통한 노력

인과응보주의에 입각한 형벌제도는 범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인이 장차 범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예방주의에 입각한 처벌은 우발범, 상습범, 신념범 등에게는 결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

증오범죄는 일종의 신념범이다. 형벌을 통하여 사회와 격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범죄자를 교육시켜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범죄의 예방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세기 90년대 이후 민족분열세력, 극단적 종교주의자들의 살인, 방화, 폭파 등 수천 건이 넘는 범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분열세력, 극단적 종교주의자들은 일종의 증오범죄의 성격이 짙은 신념범이다. 이러한 신념범은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교화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재범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확산방지 및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안처분의 일종인 “신장(新疆)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였다.

#### (가) 법적근거

《신장 위구르자치구 반극단화 조례》 제 3 장 “극단화 예방, 억제, 제거”에 따르면 “제 11 조 극단화 제거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종합시책,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여 서로 긴밀히 결합·추진하여야 한다.”<sup>56</sup>라 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제 4 조 에서도 ““국가는 반테러리즘을 국가안보전략에 포함시키고 종합적인 시책, 반테러리즘의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정치, 경제, 법률, 문화, 교육, 외교, 군사 등의 수단을 운용하여 반테러 업무를 전개한다.”<sup>57</sup> 라 고 명시되어 있어 “신장(新疆)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의 설립 근거로 볼 수 있다.

---

<sup>56</sup> (中) 바이두(Baidu, 百度) 백과사전: “新疆维吾尔自治区去极端化条例” 2019. 12 .20.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6%96%B0%E7%96%86%E7%BB%B4%E5%90%BE%E5%B0%94%E8%87%AA%E6%B2%BB%E5%8C%BA%E5%8E%BB%E6%9E%81%E7%AB%AF%E5%8C%96%E6%9D%A1%E4%BE%8B/20600268?fr=aladdin>

<sup>57</sup> (中) 바이두(Baidu, 百度) 백과사전: “中华人民共和国反恐怖主义法” 2019. 12 .20. 검색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8D%8E%E4%BA%BA%E6%B0%91%E5%85%B1%E5%92%8C%E5%9B%BD%E5%8F%8D%E6%81%90%E6%80%96%E4%B8%BB%E4%B9%89%E6%B3%95/15954871?fr=aladdin>

## (나) 교육내용

첫째, “신장(新疆)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는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를 대상으로 “국가 통용 언어문자 교육”<sup>58</sup>을 시켜 사회적응을 돕도록 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국가공용언어 전문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교재를 사용한다. 또한 모든 수업에서 국가공용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단기간 내에 표준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국가 통용 언어문자 교육”을 통하여 교육대상자들은 과학, 문화, 상업, 직업기술 등 다양한 방면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중국내 다른 민족과의 소통 및 교류를 늘리고 사회에 빠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신장(新疆)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에서는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법률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대상자의 법치의식을 고취시켜 재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본 센터의 입소자는 법치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 학교에서는 법률상식 과목을 개설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법적 시민자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업은 보통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을 초빙하여 형법, 민법총칙, 혼인법, 부녀권리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노동법, 계약법, 교육법, 직업교육법, 반테러법, 치안관리법, 신장 위구르 반극단화 조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종교 사무조례 등 법률을 배우게 되며 학습을 통해 교육대상자가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 향후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59</sup>

---

<sup>58</sup> 新华社(北京), “新疆的职业技能教育培训工作(신장의 직업기능교육 트레이닝)”,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新闻办公室>, 2019年8月16日 자.

<sup>59</sup> 같은 신문.

셋째,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사회적응에 도움

본 센터의 입소자는 대부분 학력이 낮고 기술이 부족하여 취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본 센터는 교육대상자에게 직업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향후 보안처분이 끝난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어 사회에 보다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현지 일자리의 수요와 취업여건에 따라 신발, 의류 등 제조업, 농업, 축산, 조리, 인쇄, 미용, 전자상거래, 자동차 정비,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며 학습과 실습”<sup>60</sup> 을 결합시켜 수강생이 장차 교육기간이 끝난 후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사회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올바른 종교적 가치관 수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본 센터에서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민족 종교정책과 종교지식을 교육한다.”<sup>61</sup> 교육을 통하여 중국내에는 56 개의 민족과 종교가 존재하고 서로 단결하여 공존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종교적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테러와 종교 극단주의자의 만행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가져오는지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본 센터의 종교 교육은 결국 교육대상자의 교화를 통하여 그들이 여러 민족과 융합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다) 성과

---

<sup>60</sup> 같은 신문.

<sup>61</sup> 같은 신문.

보안처분의 일종인 '신장(新藏)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의 교육의 효과로 아래와 같은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수강생의 종합적인 자질이 향상되었다.

본 센터 입소자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어 시민으로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 후 재범 발생에 일정부분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교육대상자들은 "국가공용언어문자" 사용능력이 향상되어 보안처분의 종료 후에는 다른 민족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민족간 교류가 증가하여 중국내 민족간 및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직업 기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취업 능력이 향상되어 사회적응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둘째, 교육대상자의 세뇌된 종교적 극단주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교육을 통해 다수의 교육대상자들은 테러리즘과 종교 극단주의의 본질과 해악을 인식하게 되었고 테러리즘, 종교 극단주의의 정신적 통제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대상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준법의식을 강화하여 다른 민족과 종교에 대해 포용력을 길렀고 서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의 발생을 낮추었다.

셋째, 전반적 사회질서가 안정되고 지역내 경제활동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의 왜곡된 사상을 바로잡는 교육을 통하여 신장자치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민족갈등 및 종교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와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본 센터의 교육 효과로 인하여 종교 극단주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 상대적으로 빈곤지역 및 테러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신장자치구내에 최근 이러한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내국인의 여행객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업계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신장(新藏)직업기능 교육훈련 센터"는 지역내 사회안정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다.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법률의 제정과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일종의 강제적 수단으로써 범죄의 억제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증오범죄의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중국의 증오범죄의 형성을 볼 때 오랜 기간 걸쳐 이루어 졌으며 역사적인 배경, 뿌리깊은 유교 가치관,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개인의 잘못된 가치관 생성 및 심리적 불안정 등 여러가지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미국의 증오범죄와 다르게 독특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벌만으로 증오범죄를 근절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의 원인인 범죄자의 심리적인 요인 분석과 사회적인 요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 중국의 형법학자들은 증오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3 가지 증오(三仇, 부자증오,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증오,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증오)에 관한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 (가) 소수민족 자치구의 경제 문화발전을 위한 노력

개혁 개방으로 인하여 민족 간, 지역 간, 업종 간, 개인 간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간, 지역간의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으로 인한 괴리감, 부의 분배 불균형 등으로 인한 불만으로 마찰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중국사회에 새로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증오심리가 발생하게 되었고 나아가 증오범죄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과거 20세기 90년대 신장에서 연속해서 발생한 폭력 소요사태와 테러는 일종의 증오심리 표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발생으로 중국 정부는 민족간, 지역간의 증오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역간의 교류를 늘려 민족간의 괴리감을 줄이고 있다. 또한 신장의 각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소수민족의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을 높여 취업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조치는 증오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나)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과거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심화, 불평등한 성공 기회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계층은 점점 뚜렷이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사회는 학연, 지연 등 중국의 악습과 공무원의 부패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불공정한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공무원은 돈을 받고 일부 자본가 계급에게만 편중하여 유리한 정책을 펴고 기업이 위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일반인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갔다. 결국 중국사회는 돈과 힘이 없는 보통사람은 절대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불공정(불공평)한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공평한 사회로 인해 비자본가 계층은 공무원과 자본가 계층 등 특정계층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결국 '부자에 대한 증오,'고위 공무원에 대한

증오' 심리가 유발되어 증오범죄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여 공무원과 기업간의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면서 반부패 척결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사회 구조적인 부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분배제도 및 의료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하였다. 결과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과거에 비해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줄었으며 중국 국민이 사회에 대한 불만도 어느정도 해소되었다.

## (2) 한국의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 건의

증오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증오범죄 통계법'과 '증오범죄 가중처벌법' 등과 같이 입법을 통해 강력히 처벌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해결방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 법률 제정을 통한 해결

형벌의 주요목적은 인과응보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예방의 기능도 하고 있다. 만약 처벌이 약하거나 관련법이 없으면 결국은 위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와 관련된 법률이 전무하며 일부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 통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폐기된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증오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형법내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고 처벌법규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증오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증오범죄 통계법'에 의해서 매년 FBI에서 증오범죄를 조사하고 통계를 내는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증오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증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사건과 차별을 두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결과 과거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하여 증오범죄가 자주 발생하였던 미국에서는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은 매년 증오범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세대간, 성별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여성혐오, 노인혐오, 외국노동자 혐오 등 증오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오범죄의 연구 및 입법부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증오범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증오범죄 가중처벌법'과 '증오범죄 통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증오범죄의 통계 시스템을 갖추고 범행이 발생시에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보안처분을 통한 해결

일반적 예방효과가 큰 강력한 처벌은 증오범죄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증오범죄 행위자는 대부분이 개인적, 사회적인 이유로 자신만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강력한 처벌만으로 증오범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처분을 병행한 맞춤형 개인 교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증오범죄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중국과 같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강한 신념에 바탕을 둔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사회였다. 여자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와 가정을 돌보아야 했고 남자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돈을 벌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능력 있는 여성은 대거 사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반면 남성들은 오랜 경제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더 힘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의 남성들은 구직에 실패하였고 심지어 자신이 실직을 경험하게 된 것은 모두 여자들 때문이라고 왜곡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즉, 여자를 대상으로 증오범죄를 실행해도 된다는 자기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은 죄책감 없이 범행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경제활동 증가와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은 증오범죄 발생의 다른 원인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활동 증가는 전반적인 인건비 하락과 실업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의 내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마땅히 없어져야 할 존재라 생각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후진국에서 일하러 온 열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과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죄책감 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강한 신념과 죄책감 없이 발생한 증오범죄는 무조건 강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왜곡된 사고를 교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증오범죄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중국의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는 '신장(新疆) 직업기능 교육·훈련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 입소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종교 극단주의자인 보안처분 대상자에게 종교 교육을 실시하여 왜곡된 종교 편향성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많은 교육대상자들의 재범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였다.<sup>62</sup>

그래서 한국에서도 신념범의 근본적인 치료를 돕고자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신념범 치료 센터'를 설립하고 법원에서는 증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판결과 동시에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 다. 사회적 노력을 통한 해결

첫째, 고위공무원의 부패 척결을 하여 사회전반에 팽배하여 있는 국민의 울분을 해소하고 기회 평등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18년도 우리나라는 57 점을 받아 세계 180 개국중 45 위를 하였으며 17 년도와 비교하여 3 점, 6 위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보도 의하면 고위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뇌물수수, 고위공무원 자녀의 부정입학문제와 부정취업(알선)문제 등 고위공무원의 비리와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다.



<sup>62</sup> 같은 신문

표 8<국제투명성기구(PI)의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출처: 2019 년도 국가권익위원회>

결과 우리사회는 “개천에서 용 난다” 라는 옛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신(新) 신분제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소위 “흙수저”라 불리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은 취업과 대학입시과정에서 자신이 노력해서 힘들게 쌓아 올린 성과와 노력이 무효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사회에 많은 울분<sup>63</sup>을 느끼고 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보건대학원)가 11 일 서울대 ‘사보행’ (사회발전연구소 · 보건사회연구소 · 행복연구센터 공동연구진) 주최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울분’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인 10.7%가 ‘심한 울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울분’을 느끼는 사람은(32.8%)을 포함하면 43.5%가 만성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sup>64</sup> 이러한 국민들은 과도한 수준의 피해의식으로 인하여 울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결국엔 본인의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복수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국가와 사회를 향해 증오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증오범죄의 원인이 되는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위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해야 할

---

<sup>63</sup> ‘울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울분이 사회의 부당함이나 불공정함을 경험하며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울분으로 인해 분노와 억울, 실망감, 복수심, 무기력감, 슬픔 등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된다.

(출처: 한겨레(2019.10.12), 이지은, ‘울분 권하는 사회...’노오력’무시당한 젊은이는 울분에 찼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4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47.html) (2019.11.16)

<sup>64</sup> 한겨레(2019.10.12), 이지은, ‘울분 권하는 사회...’노오력’무시당한 젊은이는 울분에 찼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47.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2947.html) (2019.11.16)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국민이 노력을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공정사회 실현 및 사회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억눌려 있던 울분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                            |
|----------------------------|
| 1 위. 직장학교내 따돌림, 괴롭힘, 차별    |
| 2 위. 개인·기업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
| 3 위.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         |
| 4 위. 언론의 침묵왜곡편파보도          |
| 5 위.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

표. 9 <국민의 울분을 부르는 일 TOP5> 출처: “2018 년, 서울대 행복연구소”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PTED(외상 후 울분장애)연구 및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을 늘려 증오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PTED(외상 후 울분장애)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독일의 경우 1990 년 통일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구 동독인들은 그들의 경제적, 법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되었다. 2002 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59%의 구 동독인들은 여전히 서독과 동독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답할 정도 많은 동독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며 좌절 및 굴욕감 등의 정서를 많이 호소하였다. 또한 많은 동독인들은 분노감, 대인관계의 회피, 자기 비난, 무기력감, 신체적 통증 등을 보이며 정신상태의 저하를 호소하였다. (중략) PTED 환자들의 정신병리(psychopathology)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울증, 강박증상, 불안감, 신체화, 분노-적대감, 대인관계의 민감함 등을 평가하는 세부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정적 사건과 연관된 감정으로는 모든 환자들이 부당함 및 불공정함(unjust and*

*unfair*)를 호소하였고 이 외에도 울분감(97.7%), 분노(91.7%), 무력감(91.7%) 등을 호소하였다. 또한 85.1%의 환자들은 기회가 된다면 복수(revenge)를 하고 싶다는 정서를 보였다.<sup>65</sup>

이처럼 PTED 환자는 보통 사회의 불공평을 주로 호소하고 복수를 하고 싶다는 정서를 보이는 등 세상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PTED 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의학계의 연구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PTED 환자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환자의 울분을 제때 해소 또는 치료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방치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세계적으로 PTED 연구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법 개발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연구비 지원 및 환자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환자의 울분을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근본적인 증오범죄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sup>65</sup> 고훈석·한창수·채정호, “외상 후 울분장애의 이해”, *Anxiety and Mood* Vol 10, No 1, 2014년 4월.

## 7. 결론

증오범죄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범죄이자 사회현상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증오범죄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증오범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결국 과거 서양 중심의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 증오범죄의 원인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역사·문화적으로 발생 원인이 비슷하고 증오범죄의 사례가 풍부한 중국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증오범죄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연구부터 시작하였다. 증오범죄는 과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었던 범죄이다. 특히, 씨족의 복수문화와 동양의 뿌리 깊은 유교문화로 인하여 복수의 정당성 및 합법성을 주어 그 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21세기인 현재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복수의 심리가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에는 과거 한국과 같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새로운 계층화가 진행되어 부자에 대한 증오와 공무원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공무원의 부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무자본 계층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였다.

결국 중국의 하위층민들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불평등과 서러움을 증오범죄를 통하여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울분과 분노는 무고한 사람에게 표출하게 되었고 사회안정과 치안유지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중국에서 이러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강력한 법집행과 통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사회적인 노력으로는 부패척결을 통하여 공정한 사회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빈부격차를 해소를 위해 신장 등 낙후지역에 공동 주택을 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안정된 사회 및 생활 정착을 위해서 경제, 정치, 문화 등 방면에 다양한 혜택을 주어 증오범죄의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위공무원의 부패, 고위공무원 자녀의 입시부정, 빈부격차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사회에서 공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의 기회를 잃은 청년들은 한국의 사회를 '헬 조선' 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오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위공무원을 감시할 입법 및 법집행을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증오범죄 관련 법률이 전무한 상태이다. 법률의 부재는 범죄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고 범죄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과 같이 '증오범죄 통계법' 및 '증오범죄 처벌가중법'의 입법을 통하여 경찰청에게 '증오범죄통계'의 권한과 의무를 주고와 매년 국회에 보고 의무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오범죄를 실시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국실정에 맞는 인권 친화적인 보안처분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며 증오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심리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적으로 PTED (외상 후 울분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에게는 치료를 병행하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증오, 분노, 울분을 치료하여 근본적인 범죄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외 문헌

- 고훈석, 한창수, 채정호: “외상 후 울분장애의 이해”, Anxiety and Mood Vol 10, No 1, 2014 년 4 월.
- (中)瞿同祖: “中国法律与中国社会”, 《中华书局》, 2003 年 9 月, 第 2 版.
- (中)袁锦辉: “法律与复仇: 理性的替代与秩序的重构”, 《法制与社会旬刊》, 2011 年, 第 10 期.
- (中)辛宇鹤: “‘孝’的观念在北魏法律制度中的反映”, 《运城学院学报》, 2006 年 第 1 期.
- (中)宋守义: “唐代复仇问题研究”, 《青海师范大学》, 2010 年.
- (中)梁治平: “法意与人情”, 北京: 中国法制出版社, 2004 年 1 月, 第 1 版
- (中)徐晓光: “‘伦理法’观点的理论缺欠”, 《凯里学院学报》, 2008 年 1 期.
- (德)恩格斯: “马克思·恩格斯选集第 4 卷”, “家庭、私有制和国家的起源”, 《人民出版社》1972 年, 第 1 版.
- (中)霍存福: “复仇·报复刑·报应说: 中国人法律观念的文化解说”, 《吉林人民出版社》, 2005 年 1 月 版.
- (法)孟德斯鸠: “论法的精神”上册, 张雁深译, 《商务印书馆》1995 年版.
- (中)何勤华、夏菲: ”西方刑法史”, 《北京大学出版社》, 2006 年 12 月, 第 1 版.
- (美)James B. Jacobs & Kimberly A. Potter : Hate Crimes - A Critical Perspective[J].22 Crime & Just.1,1997 The University of Chicago.

- (中)王文华：“‘仇恨犯罪’若干问题研究”，《河北法学》，2011年，第4期。
- (中)顾为平：“美国仇恨犯罪论纲”，《湖南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2009年第10期。
- (中)王文华：“美国反‘仇恨犯罪’刑事法研究”，《中国刑事法杂志》，2010年1期。
- (中)王永兴：“暴力犯罪：一个概念的解读”，《广西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2010年5期。
- (中)乔建中：“情绪与动机-情绪心理学家的动机理论”，《南京师大学报》，1993年3期。
- (中)莫洪宪：“我国报复社会型犯罪及其预防”，《山东大学学报》，2015年2期
- (中)马皑：“对弱势群体犯罪现象的观察与思考”，《中国法学》，2003年4期。
- (中)吴宗宪：“西方犯罪学”，《法律出版社》，2006年。
- (中)马皑：“对弱势群体犯罪现象的观察与思考”，《中国法学》，2003年4期。
- (中)张旭、刘健：“个人情绪型仇富心理与犯罪”，《山东警察学院学报》，2015年5期。
- (中)张旭、刘健：“个人情绪型仇富心理与犯罪”，《山东警察学院学报》，2015年5期。
- (中)杨宜音：“个体与宏观社会的心理关系：社会心态概念的界定”，《社会学研究》，2006年4期。
- (中)周怡：《贫困研究：结构解释与文化解释的对垒》，《社会学研究》，2002年3期。
- (中)朱力、朱志玲：“转型期的社会结构性怨恨：概念、形态和特征”，《中国图书评论》，2015年4期。

- (中)肖玉琴、张卓、宋平等：“冷酷无情特质：一种易于暴力犯罪的人格倾向”，《心理科学进展》，2014年9期.
- (美)凯斯·桑托斯：《网络共和国：网络社会中的民主问题》，黄维明译，上海人民出版社，2003年.
- (中)张广利、孙静：“群体极化的特征、根源及过程机制分析”，《华东理工大学学报》，2013年1期.
- (中)苏力：“复仇与法律—以〈赵氏孤儿〉为例”，《法学研究》，2005年1期.
- (中)王文华：“‘法外复仇’传统与“仇恨犯罪”的抗制——以中国传统复仇文化与视角”，《法学论坛》，2011年6期.
- (中)于建嵘：“当前压力维稳的困境与出路—再论中国社会的刚性稳定”，《探索与争鸣》，2012年9期.
- (中)高玥、单勇：“从压力控制到社会支持：仇恨犯罪的治理转型”，《东北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2014年5期.

## 2. 언론보도

- 한겨레, (<http://www.hani.co.kr>)
- (中) 搜狐新闻, (<http://news.sohu.com>)
- (中) 人民网, (<http://www.people.com>)/
- (中) 东北网, (<https://legal.dbw.cn>)
- (中) 法制网, (<http://www.legaldaily.com.cn>)
- (中) 搜狐新闻, (<http://news.sohu.com>)
- (中) 法律图书馆, (<http://www.law-lib.com>)
- (中) 中国新闻网, (<http://www.chinanews.com>)
- (中) 中央电视台, (<http://tv.cntv.cn>)

- (中)新华社, (<http://www.xinhuanet.com>)

### 3. 방문사이트

-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
-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 두산백과([www.doopedia.co.kr](http://www.doopedia.co.kr))
- (美)FBI 증오범죄 통계(<https://ucr.fbi.gov/hate-crime>)
- (中)바이두 (<https://www.baidu.com/>)